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3호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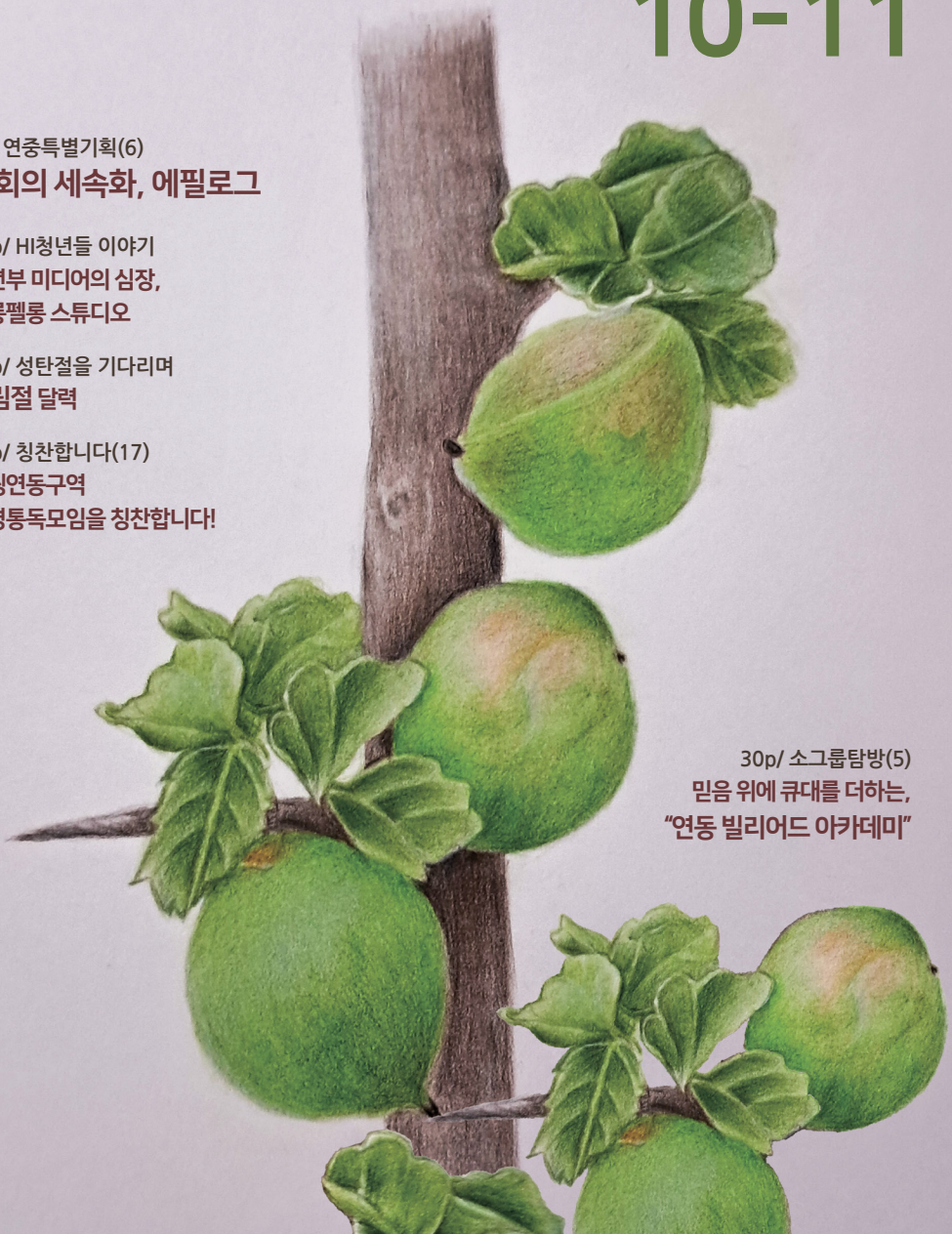
6P/ 연중특별기획(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22p/ HI청년들 이야기
**청년부 미디어의 심장,
헬롱펠롱 스튜디오**

24p/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달력

33p/ 칭찬합니다(17)
**씽씽연동구역
성경통독모임을 칭찬합니다!**

30p/ 소그룹탐방(5)
**믿음 위에 큐대를 더하는,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광휘의 속삭임>> (정현종, 문학과지성사, 2008) 시집에서 시 <방문객>



CONTENTS

2025년 10 -11월호

04 이달의 말씀 **잡초로부터 시작한 감사** 김주용 위임목사

06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12 특집-2025 신앙사경회 **소망의 다리**

연못골 광장

16 1018예수사랑 **영국에서 만난 형** 성중민 성도(초등부 5학년)
17 2030새벽이슬 **삐뚤빼뚤 가도 괜찮다고 응원해주신 나의 하나님** 유승 성도(HI청년부)
18 4050광장 **나에게 먼저 다가온 제3남선교회** 류창현 집사(제기청량리회기구역)
19 살며생각하며 **"주여 지난밤 내 꿈에.."(찬송가 490장)** 채수원 은퇴안수집사(동대문구역)

청년광장

20 HI청년부 **영육의 조화 속에 강건해지는 청년부**
22 HI청년들 이야기 **청년부 미디어의 심장, 헬롱펠롱 스튜디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

24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성탄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26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6)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몰약과 유향"** 김환 목사
28 게일학술 세미나 **"역사를 품고 미래를 세우는 교회"**
30 소그룹 탐방(5) **믿음 위에 큐대를 더하는,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YD Billiards Academy)**
32 연동 북하우스(22) **소명(The Call) /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33 칭찬합니다!(17) **씽씽연동구역 성경통독 모임을 칭찬합니다!**

선교

3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신짜오 베트남** 엄준환 선교사
36 중국어예배반 · 필리핀예배공동체 **"함께라서 행복했던 하루"**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8 청소년주일학교
46 청소년주일학교, 연동역사 교재 발간
48 어린이종합발표회
49 연동 토요 악기교실

연못골 사람들

50 교구 개편 **2026년부터 교구에 변화가 옵니다**
52 왓두유뽀리빙(5) **후렴을 지나 브릿지로 넘어가는 리듬 타는 "유기정 피택안수집사"**
54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20) **제약 분석연구원 서호석 청년**
56 새신자 어게인(23) **수학교사, 솔리스트의 남편, 그리고 어느새 연동교인이 된 "최정욱 성도"**
58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난 믿음의 걸음**
60 지체들
76 교회 첫 출석 아기
77 연동복지재단
78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9 연동컬러링



제목 : 몰약나무
크기 : 23X31cm **재료**: 색연필 **제작일** : 2025년 11월
그림 내용 :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 중 하나로 알려진 몰약이 이 나무에 상처를 내면 흐르는 갈색 진액이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몰약은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금:왕권, 유향:신성). 고대 근동(이집트·아라비아·이스라엘 등)에서 매우 귀한 향료로 쓰였고, 오늘날에도 정교회 건물에 들어서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바로 몰약 향이다.
작가 :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잡초로부터 시작한 감사

어느 목사가 폭염으로 너무 더운 날, 교회 마당에 자란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감사'를 노래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더운 날 쓸데없이 자란 잡초를 뽑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자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잡초가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 잡초가 손에 잡힐 정도로 크게 자란 것에 감사, 잡초가 자라서 교회 안에 할 일이 있는 것에 감사,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 저리 움직이지 않는 것에 감사, 잡초가 뽑아도 되는 풀인 것에 감사, 잡초 때문에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 잡초 뽑는 날 일하지 못할 정도로 덥지 않아서 감사, 잡초가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감사, 잡초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자라 내가 뽑을 수 있는 것에 감사 …"

목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결국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왜 감사를 노래로 부르시는지 알겠어요"라고 하자, 목사는 웃으며 "별것 아닌 잡초를 뽑는 일에서도 감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라고 말하며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아이작 왈턴(Izaak Walton)은 "하나님은 두 곳에 머무신다. 한 곳은 천국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날, 아무 쓸모없는 잡초를 뽑는 일조차 감사로 고백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뉴스에는 정쟁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제 상황은 서민들로 하여금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워졌고, 곳곳에 퍼지는 가짜 뉴스와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매순간 가상의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탄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김주용 위임목사

그러나 매년 사람들은 “이번에는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실낱같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며 거저 얻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더위로 인해 곡식이 잘 자라서 감사, 더위로 여름 장사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 더워서 피서를 가도 즐겁게 지내게 하셔서 감사, 더위가 끝나면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전의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회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잡초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감사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튜 헨리 목사의 말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드리는 삶(Thanksgiving)’을 넘어,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삶(Thanks-living)’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2025년을 정리하며 하늘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연중특별기획〉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5. 정신건강, 싱글 사역
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연중특별기획팀: 박윤신, 이경아,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연동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더 이상 교회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며, 성도의 정신건강 위기, 싱글 세대 사역 부재, 성도의 고령화, 평신도 사역 확대, 디지털 신앙생활 등 다양한 변화가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끼리의 좁은 시야와 외형적 성공에서 벗어나, 말씀과 사랑,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본질적 갱신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신뢰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역시 같은 도전 앞에서 고민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못골'에서는 연중특별기획팀을 구성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10가지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목회데이터연구소)를 중심으로 연동교회와 연결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연재하며, 올 한 해 교인들과 나누었던 9가지 내용들을 다시 환기해보도록 요약 정리해 함께 실었습니다.



유반젤리즘(유튜브 신앙생활) 디지털 매체,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신앙생활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대면 교제와 다음 세대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유튜브 사역을 확장하면서 소그룹 강화, 청소년주일학교 예배·교육 체계 확립, 선교적 관점에서의 활용 등 세 가지 과제를 통해 신앙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집필자 : 박현미 편집장



신앙 양극화(오소프락시) 코로나 이후 신앙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단순 취향 중심이 아닌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개인 경건은 강화되었지만, 공동체 참여는 줄어들었습니다. 연동교회는 새신자의 정착과 공동체 참여 확대, 성도의 오소프락시(바른 실천)를 통해 신앙 성숙과 교회 갱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종교화 가족 단위 신앙 전수는 안정적 전수라는 장점이 있으나, 성인이 되며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독립 신앙 결정을 앞둔 자녀 이탈과 혼자 교회에 다니는 신자의 소외 문제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대별·가정별 신앙 자립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부모 신앙이 자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집필자 : 이경아 기자



평신도 사역 부교역자 감소와 신학교 지원자 급감으로 평신도 사역이 확대되며, 코로나 기간 경험을 통해 평신도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연동교회는 평신도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도의 분산으로 과거보다 활발함이 약화된 것이 걸림돌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균형을 이루어 책임 있는 사역을 추진하고, 평신도 사역을 교회의 본질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선교 트렌드 전통적 선교를 넘어 기술 발전, AI, 기도 중심 복음화,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 등 다양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연동교회는 미디어 선교, 문화 선교, 직장인 사역, 해외 단기 의료선교, 이미용 선교 등을 추진하며, 세계선교위원회는 청년 참여 확대와 세대 간 협력,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등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집필자 : 진상협 기자



20대 청년세대(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현실주의와 윤리 의식을 중시하며, 신앙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민합니다. 연동교회 청년부는 예배, 제자양육, 기도회, 리더훈련 등으로 영적 성장을 지원하며, 전통적 예배 형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열린 신앙 문화를 조성하여 신앙 정체성을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령 교인 사역(시니어 미니스트리) 한국 교회는 고령화 속에서 시니어 성도의 삶의 의미와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고령친화교회를 지향합니다. 연동교회는 시니어 목소리 경청, 봉사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 제공, 세대 통합, 소그룹 활성화, 다양한 어려움 수용 등 5가지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말씀, 기도, 친교, 찬양, 봉사 등 다양한 사역에 시니어가 적극 참여하도록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주집필자 : 박윤신 기자



정신 건강 최근 성도와 목회자의 우울·불안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회는 이를 단순히 믿음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공유하고, 전문가 협력과 기도·말씀 돌봄을 연계하여 성도의 정신적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적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싱글 사역 한국교회는 싱글 세대를 여전히 '결혼 대기자'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싱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로 인정하고, 직장·재정·관계·영성 등 실제적 삶을 다루는 공동체 사역을 마련하며, 예배·교육 구조를 재편해 싱글이 리더십과 사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집필자 : 임재철 기자

교회의 세속화 Saltless Church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잃으면 쓸 데가 없어지듯 교회 역시 세속화를 향해가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외면 받게 됩니다. 개인도 세속화되면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속화란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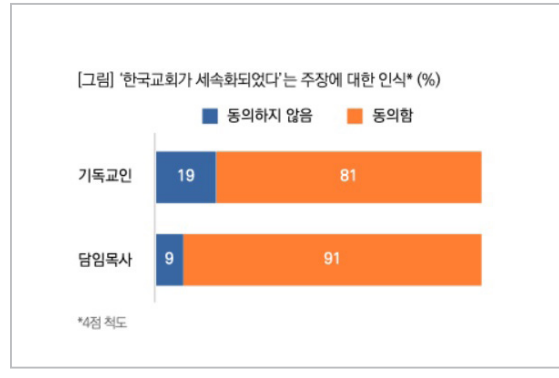
외형적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에 집중하는 교회는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갑니다. 청년·싱글 세대 이탈과 평신도 참여의 저조, 정신건강 문제 방치 등으로 이어져 교회 본래의 사명과 복음적 정체성 상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교회는 외형적 성공보다 성도들의 내적 성장, 삶 속에서의 신앙 실천, 공동체적 돌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인 81%, "한국교회가 세속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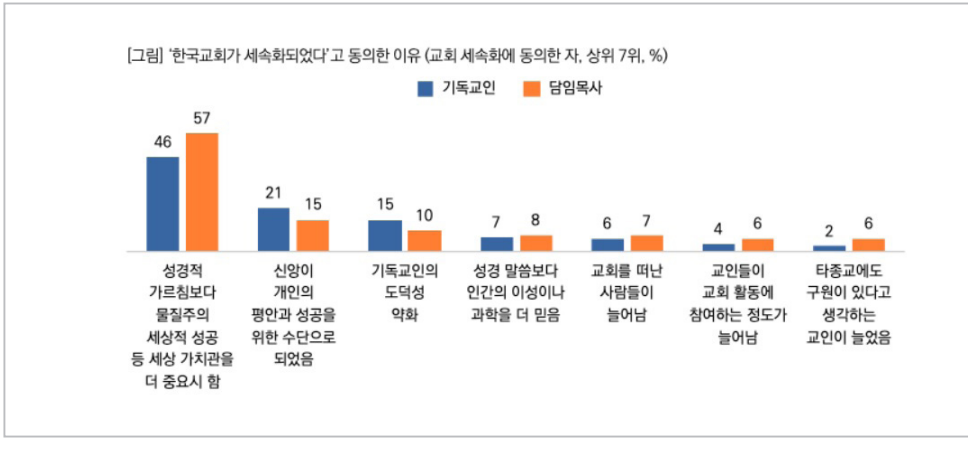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 258호 데이터를 보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인의 81%가 동의했는데, 목회자들은 그보다 더 높은 91%가 이에 동의해 교인과 교회 안에 세속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교인 70%, 목회자 82.9%는 세속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 되었다고 동의한 이유로는 기독교인 46%, 담임목사 57%가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 함"을 모두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습니다. 2순위로는 기독교인 21%, 담임목사 15%가 "신앙이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되었음"을 꼽아 교회가 개신교의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처럼 비춰지고 있음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세속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물질중심주의와 성공중심주의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모두가 그 원인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주의의 대표격인 돈과 관련해 일으키는 교회 내 문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넘어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 밖 사회와 같은 존재로 계속 세속화된다면 앞으로 개신교의 전망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258호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258호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인수 감소

교회 이탈자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인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1순위(37.3%)로 꼽았습니다. 즉 세속화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흔들며 교인들의 교회 이탈과 가나안 성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린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사이 개신교 인구가 크게 감소한 이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가장 정점이었던 때는 2012년 22.5%입니다. 이후 점차 감소하며 2023년 16.6%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사이에 20, 30대와 40대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세의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타종교보다 개신교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비도덕적인 모습"(46.4%)을 보이고, "이기적"(24.3%)이며, "배타적"(22.6%)이라서 개신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꼽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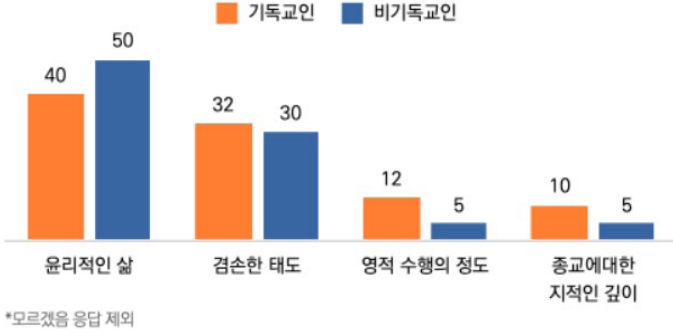
바람직한 신앙인, 좋은 교회의 기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개신교 가치인 하나님, 생명,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체성과 실천력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갈 배움과 나눔의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시대의 지배적인 삶의 습관과 방식에는 돈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소비습관과 소비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절제와 나눔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기독교인(40%), 비기독교인(50%) 모두 동일하게 1순위로 "윤리적인 삶"을, 2순위로 기독교인(32%), 비기독교인(30%) 모두 "겸손한 태도"를 꼽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보다 일상에서 나타내는 겸손한 태도와 윤리적인 삶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기독교인은 '경건한 예배와 말씀'(39%),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26%), '서로 돌봄'(13%) 순으로 응답했고, 비기독교인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43%)를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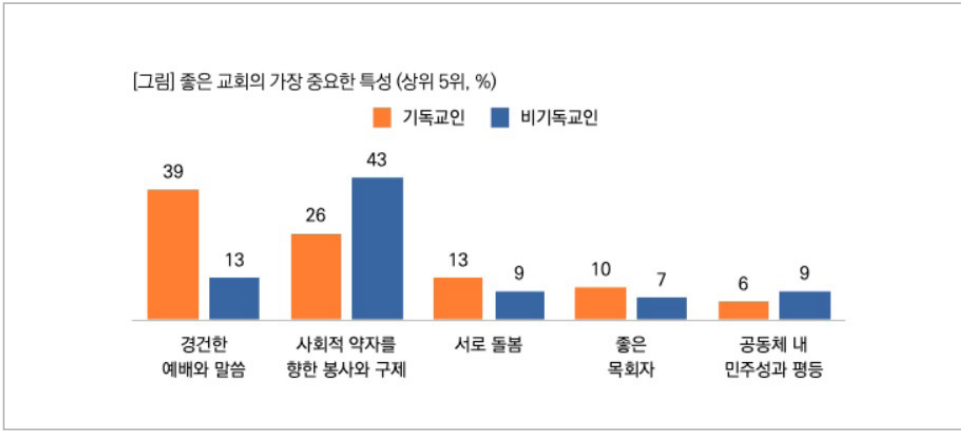
[그림] 신앙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279호

이어 '경건한 예배와 말씀'(13%), '서로 돌봄'(9%) 등의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사회적 책임 실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돌볼 때 비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세속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사적 공동체에서 벗어나 더 크게 사회 속에서 공적인 교회 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제279호

에필로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re But Not Religious) 그룹이 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서구사회는 종교의 재소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초월적 감각들은 물질주의, 불안, 위험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주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일종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 감각들은 긍극적으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연못골'은 올 한 해 유반젤리즘,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의 변화,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정신 건강, 싱글 사역,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라는 10개의 키워드 속에서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있는가"에 있습니다. 건물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연동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Ecclesia reformata, est semper reformanda). / 주집필자 : 박현미 편집장



소망의 다리

〈특집 목차〉 1. 첫째 날, 믿음과 비전 2. 둘째 날, 반전의 하나님 3. 셋째 날, 마커스 워십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 동안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신앙사경회가 열렸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 워십으로 삼박자를 이루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따뜻한 생강차와 추억의 붕어빵과 드립커피, 그리고 어묵까지 공동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섬겨 주시어 영과 육의 양식이 균형을 이루어 성도들 간에 따뜻한 사랑도 나눌 수 있었다. 방송인 조혜련 집사와 마커스 찬양팀은 게일홀에서 교인들께 자신의 도서와 LP 등에 사인을 해주는 순서도 있었다.

첫째날 : 믿음과 비전 / 강사 :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15일(수)은 트리니티 밴드의 찬양과 권영석 장로의 기도, 황보정숙 권사의 성경봉독(히브리서 11:23-26), 여전도회 찬양대의 '하나님의 나라(민참미 편곡)'의 찬양, 김주용 위임목사의 강사소개 후 김요셉 목사가 '믿음과 비전'을 설교하였다.

둘째날 : 반전의 하나님 / 강사 : 조혜련 집사(방송인)

16일(목)은 연합찬양단의 찬양과 김웅종 장로의 기도, 정영희 권사의 성경봉독(요한복음 3:16), 샬롬 중창단의 '주님과 같이(Lenny Leblanc Arr by James Koerts)'의 찬양 뒤 조혜련 집사가 '반전의 하나님'을 간증하였다.

셋째날 : 마커스 워십 / 인도 : 소진영 간사

17일(금)은 마커스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성경봉독(마태복음 26:27-29)과 '예수의 보혈'로 설교가 있었다. 곧이어 마커스 찬양팀과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워십 찬양을 드렸다.

기획 및 기사 작성 : 고현수, 박동진, 진상협 기자

신앙사경회 첫째 날

‘믿음과 비전’ 김요셉 목사



원래 3일 동안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할 사항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주제 중 ‘믿음’은 가장 기본값이라 생각해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믿음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각자가 그 믿음의 1세대가 되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강사 목사님이 속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고 믿음의 주체인 당사자에게 직접 침례를 행사한다.

믿음은 선물일까요, 선택일까요?

이 질문은 본문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던지는 화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은 ‘믿음과 구원’은 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믿음에는 선택의 특성이 없지는 않으나 믿음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히 11:23)

아름다운(헬: 아스테오스) 아이? A beautiful(NASB) vs. No ordinary(NIV) / a proper(KJV) child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행 7:20)

가난한 소작농의 막대 아들로 믿음을 모르던 당시 15살이던 강사 목사님의 아버지가 6.25 전쟁을 통해 미국 군인 한 명을 만났고 그 분을 통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강사이신 목사님의 어릴 적 모습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섭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 섭리의 선물, 비전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뒤늦게나마 아버지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에 함께 돌아와 선교사역을 한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발견했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한다. 믿음의 1세대 되는 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모세의 부모처럼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는 그 소명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설계(Design)하셨고 섭리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비전을 통해 전수된다고 말씀드린다.”



신앙사경회 둘째 날

‘반전의 하나님’ 조혜련 집사

예수 밖에서 채워지지 않던 삶

33년간 방송 활동을 이어 온 조혜련 집사는 오랫동안 일본 불교를 믿으며 살았지만, 이혼과 방송 중단 등으로 마음 속 공허함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남편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찾았고,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이 쓸데없는 자”라는 가사가 자신의 상처를 건드려 눈물이 흘렀다. 이어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며, 오랫동안 허무함에 짓눌렸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 처음으로 예배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도와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

그 배경에는 선배 이성미 집사의 오랜 중보기도가 있었다. 200명의 연예인 이름을 적어 기도하던 중, 그 명단 7번째가 바로 ‘조혜련’이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관계를 끊을 정도로 마음을 닫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다시 부르셨고, 석 달 동안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던 중 영접기도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인정욕구와 공허함의 짐이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다. 이후 그는 성경을 소리 내어 녹음하며 함께 읽는 ‘성경 바람잡이’ 사역을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복음은 가정 전체를 변화시켰다. 36년 동안 다른 종교를 믿던 어머니는 집안의 우상을 치우고 큰 글자 성경을 들고 하루 8~10시간씩 읽기 시작해 7년 동안 약 80독을 이뤄냈고, 건강의 회복뿐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평안의 고백이었다. 지금은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고 있다. 조혜련 집사의 가정은 어머니와 8남매 중 7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랜 시간 기도해 온 연예인 동료들도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영의 양식도 매일 드셔야 합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77세 어머니도 했습니다.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루 20분, 성경 5장을 소리 내어 읽는 작은 순종만으로도 일독할 수 있으며, 말씀은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격려한다. 이어 가족을 향한 중보기도의 실천을 다시 강조한다.

131년 전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연동교회 성도라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작은 일상이 결국 가정과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길임을, 조혜련 집사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신앙사경회 후 마커스 워십 20주년 기념 LP판 판매 행사

신앙사경회 셋째 날

마커스 워십

신앙사경회 마커스위십 중
“내게 강 같은 평화”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연동교회 본당에서는 신앙사경회 셋째 날 예배가 열렸다. 이번 예배는 찬양사역팀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찬양 속에 깊은 경배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7시 30분, 본당의 조명이 켜지고 마커스 워십팀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실로암’, ‘내게 강 같은 평화’ 등 친숙한 곡들이 이어지며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날 말씀은 김주용 위임목사가 마태복음 26장 27-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주제로 전했다. 설교 후 이어진 두 번째 찬양 시간에서는 ‘은혜’, ‘꽃들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등의 곡으로 회중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의 끝자락에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앵콜 찬양이 이어졌고, 이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감사 인사와 광고, 축도로 사경회 셋째 날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영국에서 만난 형



성중민 성도
(초등부 5학년)

이번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영국으로 5박 6일 여행을 갔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날은 마침 토요일이었고, 아빠의 친구분도 쉬는 날이어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곤했지만 아빠의 친구분 집에 가는 동안 경치를 보며 영국 여행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다. 아빠의 친구분 집에 도착하니 태호 형과 하원이 누나가 있었다.

태호 형은 많이 아팠는데 요즘도 치료를 위해 평일에는 병원에 있다가 주말에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러 집에 온다고 한다. 마침 태호 형이 집에 오는 날에 나도 영국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틀을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하루 늦게 도착했거나 하루 일찍 도착했다면 형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생각하니, 토요일에 영국에 도착한 것이 정말 감사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태호 형이랑 금방 친해졌다.

아빠 친구분 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평소에 주말이면 자주 가는 공원이 있다고 해서 함께 그 공원에 가 보았다. 공원 이름을 물어보니, 윈저 그레이트 파크라고 했다. 그곳의 나무들은 엄청 크고 길었고, 엄청 많았다. 태호 형과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함께 뛰어 놀았는데, 나는 영국 여행 중에서 형이랑 보낸 이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다음날 태호 형이 다니는 런던 열방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국어로 찬양도 부르고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 예배드릴 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 돌아가며 한 번씩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 주었더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동생, 형, 누나들과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는데,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은 거의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토요일에 도착해서 태호 형과 이틀을 보낼 수 있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영국 한인 교회 사람들과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에 영국 여행을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다시 영국에 가고 싶고, 태호 형을 만나고 싶다. 아빠가 알려주셨는데, 형은 얼마 전에 병이 다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한다. 태호 형이 건강해져서 너무 다행이고 형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년에 태호 형이 한국에 오면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연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삐뚤빼뚤 가도 괜찮다고
응원해주신 나의 하나님



유승 성도
(HI청년부)

안녕하세요. 연동교회 새내기셀(슈무셀)에 다니고 있는 유승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이름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성욱 집사님과 이수영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한 명의 하나님 자녀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의 20살이 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생입니다. 보통의 대학생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어쩌면 남들보다 고민과 생각이 과도하게 많은 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한동안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대학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살던 보통의 청소년이었던 저는, 한때 평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더 먼 목표와 이상향을 찾으러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 커진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고등학교, 학원이 전부였던 저에게 대학교와 알바는 그때 당시엔 너무도 큰 인간관계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앞섰고, 미래에 대한 여러 잡생각과 흐릿함이 저를 집어삼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도움이 됐던 것은 셀리더 분들의 격려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대학생활에 억지로 너를 끼워 맞출 필요 없다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고, 다 괜찮다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앞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뜩 그러다가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기억나는 이유는, 아마 기도회 중에 들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진로, 내가 진정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당장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해주셨습니다. 삐뚤빼뚤 가도 된다고, 길을 가다가 헤매고, 돌고 돌아 도착해도 된다고. 네 길이 어떻든, 내가 응원하고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셀리더 누나들이 했던 말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내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기로. 어차피 하나님이 내 백이 돼주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 후 반년이 지난 지금, 인생의 방향성은 여전히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도 무섭진 않습니다. 이 또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자녀들의 신앙심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자녀로서 말하자면, 언젠간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엔 닿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기다려준 것 외에 특별히 표면적으로 뭘 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온 제3남선교회



류창현 집사
(제기청량리회기
구역)

2023년 1월 어느 날 찬바람이 불던 새벽에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 5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고생하시다가 그 해 12월 24일 늦은 저녁에 속이 거북하다고 하시기에 이대부속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체한 정도겠거니하고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T촬영 결과 암이 의심되고 병원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한 후 어머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수술하기에도 환자 나이와 암 진행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매우 황망한 가운데서 어머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 교회 생활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우리 구역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상례부 강철민 장로께서 연락을 주시고, 직접 장례식장에 오셔서 여러 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3남(당시 3·4남)선교회에서 당시 지도목사님(박요한 목사)과 3남 회장님(강용국 안수집사)을 비롯하여 많은 3남선교 회원분들이 오셔서 위로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동교회는 고등부 때부터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 서리집사가 되어서도 교회일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3남선교회는 어머니상을 치르면서 먼저 다가와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상으로 심적으로 힘들 때 위로를 건네준 3남선교회가 나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고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상을 마치고 주일에 인사차 방문한 3남에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환대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나에게 연동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나눔과 교제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남선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남선교회는 나에게 먼저 다가온 것처럼 누구나에게 다가갈 것이며
나에게 열려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에는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3남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이 찬양은 내 최애 찬송가이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는 마음을 표현한 내가 찬송가 중 최고로 꼽는 걸작이다. 마음속이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며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재충전한다.



채수원 은퇴협동안수집사(동대문구역)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고향에서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상경하여 공장생활하며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계속해왔던 나의 소년공, 군 전역 후 시청 앞에 위치한 유명호텔 인사과에 고졸사원으로 입사해 바쁜 회사생활 하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50대 중반 늦은 나이에 한국남성합창단에서 함께 노래 부르며 만난 절친 후배인 정병일 교수(현재 우리교회에서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교육 진행)의 권유로 회사 눈치 봐가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했던 일. 7년 동안 한성대학교에서 호텔경영 과목을 가르쳤던 일. 나는 내 일생의 좌우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로 정해놓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50년 넘는 기간 동안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찢어지게 가난한 집 6남매의 장남에게 시집와 병고에 계신 시부모님과 어린 시동생들 돌봐가며 어려운 살림 맡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을 지탱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잘 자라줘 지금은 우리 부부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 딸들 참 고맙다.

지금은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본죽, 미아사거리점)에 나가 일손을 보태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남성합창단과 젤코바 남성 첼버콰이어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맘껏 부르고, 퇴직하면서 시작한 색소폰 연주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다. 부족한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다툼 한번 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6남매 내 형제들,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애교를 잃지 않는 이쁜 내 아내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들, 이 자리를 빌어 참 감사하다는 속마음을 전한다. 사랑해!

영육의 조화 속에 강건해지는 청년부

| 금요기도회





9월 26일, 10월 24일, 10월 31일, 11월 14일, 매주 금요기도회를 위해 교회로 모인 청년들은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말을 향해가는 이 시기에 청년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10월 25일(토)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많은 청년들이 모여 창신동 이웃 어르신들께 필요한 물품을 전하며 추워지는 날씨만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물품을 전달하며 작은 손길이지만 올 겨울을 견디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청년부 YBS 북스터디





팀 켈러 목사의 『예수, 예수』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청년부 YBS 북스터디가 9월 27일(토) 개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더게일홀 뉴커머스에서 진행되며 참여한 청년들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북스터디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과 바른 복음 이해 위에 서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셀 리더 양육





셀 리더 양육 모임이 9월 28일(주일), 10월 19일(주일)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셀 리더로서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을 잘 돌보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은혜로운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식탁 교제로 마무리했답니다.

| 축구, 풋살 친교





10월 3일(금)에는 영락교회 청년부와 축구로, 11월 15일(토)에는 열방교회 청년부와 풋살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뛰며 땀 흘리는 운동을 통해 영육이 건강해지는 뜻깊은 교제가 되었습니다.

| 2026년도 회장, 부회장 선거





11월 2일(주일) 2026년도 회장·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중보 가운데 회장에는 윤현종 청년, 부회장에는 김지원 청년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하이청년부를 이끌어갈 두 리더가 지혜와 믿음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미디어의 심장, 헬롱펠롱 스튜디오

연동교회 HI청년공동체에는 미디어로 주님을 섬기는 팀, '헬롱펠롱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헬롱펠롱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작은 동아리처럼 만들어져 어엿한 미디어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동체'가 된 헬롱펠롱을 소개합니다. / 남다은 기자

직접 만나진 못해도, Hello F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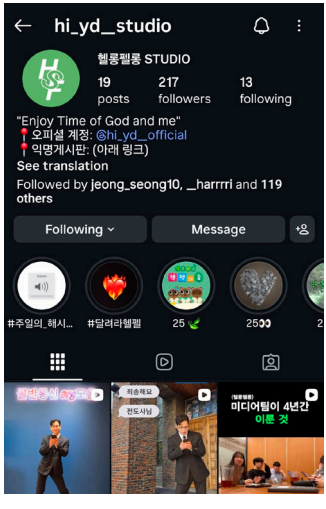
헬롱펠롱이라는 이름은 'Hello Fellow', '안녕 동역자들'을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됨과 동시에 청년들의 교제도 어려워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던 청년들이 모여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진 못해도 잘 지내고는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안녕한지 콘텐츠를 통해 안부를 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도록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고, 팬데믹 시기 온라인 교제 활성화가 목표였던 헬롱펠롱은 그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고 콘텐츠와 운영 방향성을 '주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자'로 바꾸어 청년들에게 신앙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 3회 헬롱펠롱 인스타그램(@hi_yd_studio) 정기 콘텐츠로 청년들의 SNS피드에 나타나 주중에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위로가 되어주고, 말씀 묵상 콘텐츠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기획, 디자인, 촬영 등 청년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미디어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재는 숏폼 영상 콘텐츠들로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생각들을 재밌게 담아내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화제되는 영상들을 패러디하기도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노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헬펠st 이벤트

헬롱펠롱은 오프라인에서도 SNS를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해 청년 교제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사순절, 대림절 등의 주요 절기와 수련회 기간에 특집 콘텐츠와 이벤트를 기획해 청년들이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여름수련회에서는 '헬펠 상점'을 열어 조원들끼리 수련회 기간동안 활발히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련회 기간내내 조원들이 합심해 미션을 수행하고 상점 화폐인 '롱'을 모아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이벤트였습니다. 재밌는 미션과 센스 있는 상품들로 수련회 기간 중 청년들에게 소소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미디어팀으로 우뚝 서다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헬롱펠롱은 이제 어엿한 청년공동체의 한 부서입니다. 25년도 재정비를 통해 헬롱펠롱식 신앙콘텐츠뿐만 아니라 예배 및 교제 기록, 행사 디자인 및 홍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알림과 스케치 사진을 찍어 하이청년공동체 인스타그램(@hi_yd_official)에 업로드하고 매달 청년공동체 일정과 기도제목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을 보고 교회에 방문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련회 등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헬롱펠롱의 디자이너들이 포스터, 워크북 등 출력물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홍보영상 제작에도 참여해 이제는 청년공동체 미디어 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미디어팀으로서 활동반경을 확장했습니다.





2025 헬롱펠롱 멤버들의 한마디





애니(남다은/팀장): 어쩌다가 이렇게 바빠졌는지 모르겠지만 @hi_yd_official @hi_yd_studio 모두 팔로해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리보(김민준/부팀장): 더욱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하는 헬롱펠롱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리(민다은/회계): 맨날 많관부를 외치던 우리가 많은 관심에 땀 흘릴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계속 헬펠 다운, 우리만의 사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태태(남윤태/서기): 앞으로의 행보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To be continued…

전구(구자현): 헬롱펠롱 미디어팀 화이팅~~~!!!!!

람람(송하람): 현실을 넘어 미디어 안에서도 잘 살아가볼게요…

보노(황보예원): 한층 더 성장해나가는 헬롱펠롱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림절,
성탄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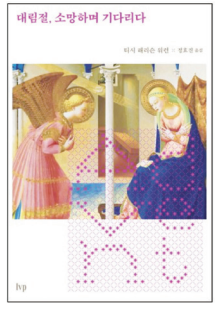
하루 한 말씀 소리내어 읽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
기도로 응답하기
느낀 점 함께 나누기
주일마다 대림초 하나씩 밝히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1/30 대림1주(회개) 이사야 64:1	12/1 시편 80:3	2 고린도전서 1:7	3 마가복음 13:33	4 이사야 2:3	5 시편 122:1	6 로마서 13:12
7 대림2주(용서) 이사야 40:3	8 시편 85:10	9 베드로후서 3:9	10 마가복음1:3	11 말라기3:1	12 시편85:8	13 베드로후서 3:14
14 대림3주(기쁨) 이사야64:1	15 시편 126:5	16 데살로니가전서 5:16	17 요한복음1:9	18 이사야 35:1	19 누가복음1:28	20 사무엘하 7:16
21 대림4주(소망) 시편 89:1	22 로마서16:25	23 누가복음1:46	24 이사야 9:6	25 성탄절		



*'연못골'의 대림절 달력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성서일과(RCL)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30일(대림1주)부터 12월 24일(성탄 전야)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편집한 IVP의 대림절 달력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독서'합니다



"우리의 왕이 오심을 기억하라. 준비하라." 예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4주간의 여정인 대림절, 그 기다림의 의미가 가진 본질을 사유하게 하는 깊이 있는 안내서인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라〉(티시 해리슨 워런/ 정효진 옮김/ IVP)를 소개합니다. 유려한 문장으로 신학적 사유와 자전적 통찰을 담아내 깊은 신앙의 세계로 안내하는 티시 해리슨 워런 목사가 이번에는 대림절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자는 대림절의 본질과 의미를 두루 살피고,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경험시켜 줍니다. 독서하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정직하게 어둠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맞닿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올해는 바로크의 두 거장 헨델과 바흐가 태어난 지 3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탄 즈음이 되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단골로 연주되곤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서울모테트합창단(단장 박치용)이 헨델 탄생 340주년을 기념해 관객 참여형의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Sing along Messiah)를 연주합니다. 1742년 4월 12일 헨델의 지휘로 초연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 총 53곡에 담았습니다. 초연 당시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퍼지자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의 행동을 따라 모든 관객들이 따라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관객이 합창에 참여할 수 있는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는 12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준비'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도 대림절 동안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본당과 교회 마당에 조명을 밝히고 성탄트리를 장식해 매주 하나씩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히며 회개와 용서를 지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종로5가역에 성탄트리를 장식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구세주 성탄의 소식을 알립니다. 종로5가역 일대 나무들에는 그동안 수개월 모여서 준비한 뜨개옷을 입혀 겨울의 차가운 거리에 따뜻한 온기를 조성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성탄예배와 발표회 준비로 바빠집니다. 찬양대는 성탄절 칸타타 준비에 힘을 쏟는데, 올해는 게일찬양대 주관으로 성도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함께 온 세대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 너희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눅12:32). / 박현미 편집장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몰약과 유향'



몰약과 유향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오던 이름이다. 몰약은 향유나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향기름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아 1:13)"에 나온 것처럼 고대 귀부인들은 향 주머니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했으며, 페르시아 왕들은 왕관 속에 넣어 강장제로 사용하였다.

몰약 나무는 굵고 단단한 관목이며, 잔가지들이 엉기듯 자유롭게 뻗으며 가시가 있다. 목재와 수피에서 향기가 나며 상처를 내면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서 굳어져 '몰약'이라는 향료 , 약용 수지가 된다. 몰약 수지는 강렬한 향기를 내며 향료나 방부제로 사용된다.

유향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향료였다. 성막에서는 증거궤 앞에 두는 특별한 향을 만들 때 유향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분향제로도 쓰였다. 그 중요성이 크기에 레위인 가운데에는 유향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세워질 정도였다.

유향은 쓴맛을 내며, 분향할 경우 점차 흰 연기로 바뀌면서 향기도 더욱 짙어진다. 유향에는 사람의 기분을 온화하게 해주는 휘발성 정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향기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6-8월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어 수지를 채취하는데, 유백색의 수지가 나와 맺혀서 유향이라고 불린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11)"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향은 레위기의 제사



김환 목사

규례에서 향기로운 제물에 꼭 필요한 재료이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한 장례용 향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수님의 장례 때 실제로 쓰였다(요 19:39). 몰약은 죽음과 고통을 동반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몰약과 유향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추운 계절에 어울리는 향수를 몇 가지 추천하려고 한다.

메종 프란시스 **의 우드 사틴 무드는 몰약과 오우드, 바닐라, 로즈, 벤조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향이다. 실제로 몰약을 쓰지 않았지만, 몰약과 유사한 감각의 향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드 향이 강하지만 날카롭지 않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향이다.

조 말*의 미르 앤 통카 또한 추천하는 향 중 하나이다. 몰약과 통카빈, 바닐라가 어우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라벤더가 처음에 느껴지면서 부드럽고 차분함, 쌉싸름한 허브 향이 느껴지다가 부드러운 몰약향이 나타난다. 통카빈과 바닐라가 묵직하면서도 포근한 달콤함을 주는 향수이다.

르 라*의 미르55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향이다. 르 라*의 도시별 한정판 향수이라 매년 9월에 전세계 르 라*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 그 외 시기에는 직접 그 도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향이다. 드라이하면서도 스파이시, 쌉싸름한 몰약의 향을 느낄 수 있다. 르 라* 특유의 모던함을 느낄 수 있는 향이다.

또한 베이19는 유향의 느낌이 나는 잔향을 느낄 수 있다. 비 내린 뒤의 땅, 깨끗한 공기, 풀내음을 맡을 수 있다. 유향이 베이스에 은은하게 녹아 있는 매력적인 향이다.

톰 포*의 오우드 우드는 중심은 우드이지만 유향과 레진류가 베이스에 조화되어 있는 향이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향이다. 거칠지 않은 부드럽고 정제된 우디향을 느낄 수 있다.

몰약과 유향의 향기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 향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루실 부활의 영광까지 담겨 있다. 주님 오시는 계절을 맞으며,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연재한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 칼럼을 마칩니다. 6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해주신 김환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필자와 새로운 주제의 칼럼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역사를 품고 미래를 세우는 교회”

1894년 연못골에서 시작된 복음의 언덕, 오늘의 세상을 비추다



2025 연동교회 정기 학술세미나, 교회의 원(原)역사와 오늘의 사명 재조명

10월 12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연동교회 본당에서 열린 ‘2025년 정기 학술세미나’에서는 “연동교회의 원(原) 역사 연구”로 1894년부터 1900년까지의 설립 초기 역사를 다시 살피며, “연동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함께 묻는 자리였습니다.

■ 1894년, 연못골의 첫 예배-복음의 시작

발표를 맡은 김일한 교수(동국대학교)는 “연동교회는 189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7일 사이, 정동여학교가 연못골로 이전한 뒤 처음 드린 주일예배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전쟁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이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청일전쟁으로 도시가 흔들렸지만,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연못골로 이주하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첫 숨결이 되었고, 그 작은 예배가 지금의 연동교회를 있게 한 하나님의 씨앗이었습니다.

■ 다니엘 기포드(Daniel L. Gifford) 선교사-첫 담임, 복음의 뿌리를 내리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동교회의 첫 담임선교사가 다니엘 기포드임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1895년 서울 선교지부로부터 ‘연못골교회 담당(Charge)’으로 공식 임명되어 1900년 소천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포드는 자신의 사택을 예배당으로 내어놓고, 1896년 10월 첫 헌당예배를 인도하며 교회의 틀을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임스 게일 목사가 1900년부터 27년간 사역하며 교회를 조직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김일한 교수는 “기포드는 제1대 담임선교사, 게일은 제1대 위임목사로서 연동교회의 초석을 함께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기포드 목사와 게일 목사



1910년 연못골교회

■ 잊혀진 조사, 홍정우-신앙과 민족의 영혼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한국인 조사 홍정우에 대한 조명이었습니다. 홍정우 조사는 독립협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1898년부터 연동교회에서 예배 인도와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1899년 한강에서 배 전복 사고로 순직했지만, 그의 헌신은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의 초석을 세운 한국 신앙인의 첫 자취로 남았습니다. 김 교수는 "연동교회의 원역사는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신앙인들이 함께 세운 복음의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선교사의 언덕, 복음의 증인으로 남다

세미나 논찬을 맡은 김주용 위임목사는 "연동교회는 정동과 함께 서울 복음화의 두 축을 담당했던 '선교사의 언덕'을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온 유일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덕에는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선교사 주택이 함께 서 있었고, 복음의 불씨가 조선의 도시 한복판으로 번져갔습니다. 김 목사는 "이제 그 언덕을 지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단지 역사를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오늘의 세상 속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의 한국교회 속에서 연동교회의 사명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의 약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단절 등 여러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동교회 같은 역사 깊은 교회가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동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혼란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방향을 제시해온 역사였습니다. 1894년에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세웠고, 1900년대에는 근대 교육과 여성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사는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 세상 속에서 "진리와 화해의 교회", "세대를 잇는 신앙의 다리"로 서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교회를 나누려 할 때, 연동교회는 사랑과 화해의 복음으로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절망할 때,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교회를 멀리할 때, 연동교회는 역사를 품은 따뜻한 공동체,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 미래를 향한 소망-"역사를 품은 교회, 세상을 비추는 교회"

연동교회는 앞으로 교회 사료관 확충, 지역 복음유산 보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사 교육과 선교 연합 사역을 통해 '역사와 신앙이 공존하는 교회'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 사역들은 단순한 기록 보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세우는 일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미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명이 되고, 뿌리는 미래가 된다."

1894년, 연못골의 첫 예배로 시작된 연동교회는 기포드의 헌신과 홍정우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 기억 속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131년 된 연동교회가 오늘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 임재철 기자

믿음 위에 큐대를 더하는,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YD Billiards Academy)



새벽기도회 후 시작되는 또 하나의 예배, ‘당구 교제’

연동교회에는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큐대를 잡으러 가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

이들의 이름은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YD Billiards Academy). 2024년 2월 3일(토), 건전한 취미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신앙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당구는 의외로 긴 역사를 가진 스포츠다.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806년 가죽 팁과 초크의 발명으로 현대적 형태를 갖추었다. 한국에서는 1912년 순종황제 때 창덕궁에 설치될 정도로 상류문화의 일부이기도 했다.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의 철학도 단순한 게임을 넘어 품격 있는 취미, 건강한 교제, 그리고 세대 간 신앙의 연결을 지향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실내만 들어오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니까요!” .

파란 테이블 위에서 맺어진 관계, 총 28명의 ‘큐대 공동체’

정기 모임은 주 1회, 매주 예비일 새벽기도회(토) 후 바로 시작되며 필요시 성경공부 시간 후에 모인다.

장소는 교회 인근의 빌킹 당구장을 사용한다. 오전 대여라 외부인 없이 연동인끼리만 모여 분위기도 차분하고 조용하다.

회비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매회 테이블 사용료만 받는다. 단돈 1만원!

현재 회원은 교인 및 외부인을 포함해 총 28명. 신규 회원은 언제나 환영하며, 특히 새가족이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한다. 처음 당구를 접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기초 레슨까지 제공하니, 당구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쯤되면 전도용 큐대라고 해야겠다.

조직은 진지하게, 분위기는 따뜻하게

조직운영에도 ‘진심’이다. 이래봬도 회칙과 회원 가입서를 명문화하여 갖추고 있다. 회칙은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이에

따라 현재 회장 이상민 안수집사. 코치 겸 총무 박흥열 피택안수집사, 고문 김효식 은퇴장로가 솔선하여 조직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당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동아줄입니다. 취미를 나누며 친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믿음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향후 계획 역시 야심 차서 “당구를 치러 왔다가, 믿음이 커지는” 기적(?)을 노리고 있다

“당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취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연동 빌리어드 아카데미의 중요한 목표다.
앞으로도 기존 회원은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모임과 레슨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관계, 취미가 아니라 공동체, 당구가 아니라 영적 연결을 꿈꾸는 모임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들의 큐대는 신앙 공동체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선교적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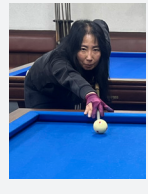
다음 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이들과 더불어 큐대를 잡으면 우리도 조만간 3쿠션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 공을 굴리는 소리는 단순한 타격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가는 신호음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서로를 돕고 세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남는다. / 박현미 편집장

***모임** :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회 인근 빌킹당구장 ***회비** : 참가시 1만원
***가입 및 문의** : 박흥열 총무(010-8357-3345)





유일한 여성 빌리버인 이호준 집사(은평구역)와 ‘잠깐 인터뷰!’



유일한 여성인데 적응하기 어떠셨나요? “젊었을 때부터 당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자라서 배우기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왕초보인 저도 배우기 쉽게 잘 가르쳐주셔서 호기심과 기대가 충족되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어떻게 권유하고 싶으신지요? “연습 후 공이 맞았을 때 오는 쾌감, 점점 실력이 향상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정말 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구는 쓰지 않던 근육과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집중력과 운동량을 늘려줘서 좋은 스포츠입니다. 도전해보세요!”



소명(The Call)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오스기니스 지음 · 홍병룡 옮김 / IVP / 2019(확대개정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표현한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흔히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곤 한다. 과연 '소명'이란 무엇인가? 오스기니스는 이에 대해 성경, 철학,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총동원해 해설한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에 이따금 빠지곤 한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이 책은 제시한다. 주님이 뜻하신 길을 간다는 것이 무조건 교역자가 되거나, 교회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곳이 있고 그 곳이 설령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룩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기는 신앙적인 딜레마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소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신원하 지음 / IVP / 2020(확대개정판)

'일곱 가지의 대죄'는 어디서 기원했으며, 주님은 성경에서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7가지의 죄 그리고 허영까지 각 죄목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주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을 이 책은 제시한다.

신앙 생활에서의 '현대의 율법'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성경 속에서 각 죄의 근거를 찾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인용해 이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극복 방안까지 상세히 다루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훌륭한 교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느낄 때, 신앙 생활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파구를 찾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 남다은 기자

씽씽연동구역 성경통독 모임을 칭찬합니다!



이수진, 황보무완, 박성우, 김은진, 신은효, 안동혁, 주태성, 성창국, 양진실, 박동진 집사

씽씽연동구역의 성경통독 모임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깊은 은혜와 친교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8명의 성도가 자발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시작한 모임은 1년 만에 성경 1독을 마쳤고, 현재는 2명이 더 합류해 총 10명이 성경 2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삶이 열리고, 은혜와 친교가 깊어지는 말씀 공동체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성경통독 중 어느 날, '역대하부터 느헤미야' 말씀 속에 찬양대가 하나님께 서서 노래하는 장면을 읽으며 회원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 'YD 밴드' 찬양단을 만들고 성경통톡 인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매주 첫번째 주일 1시30분부터 가나의집 4층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성경통독 1독을 마친 후에는 작은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그때 박요한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나누고, 상패도 만들었죠. 다들 직접 준비해와서 더 뜻깊었어요." 이 모임을 이끌던 한 성도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모여 '말씀의 잔치'가 된 자리였습니다.

이들의 성경통독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맺어진 우정과 은혜는 계속 이어져, 현재는 성경통독 2독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하루 한두 장 말씀 읽기가 이제는 삶의 중심이자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함께 이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는 '함께 읽는 기쁨'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일상으로, 또 다른 이는 조용한 기도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고백처럼, 이들의 성경통독 모임은 내려놓음 속에 피어난 순종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10명의 모임이 씨앗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찬양과 나눔의 공동체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씽씽연동구역 성경통독 모임을 칭찬합니다! / 박동진 기자

신짜오 베트남

지난날 호치민시 중심에 있는 Nha Hat Hoa Binh(화평 공연예술극장)의 메인 홀에서 융이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쑤원록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융이는 야무지고 당찬 15살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몇 달 전부터 꼭 와 달라며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고 선물도 준비해 오라며 너스레를 떨 줄도 압니다.
한번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파도처럼 요란하게 갔다가 썰물처럼 무심히 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려가고 밀려오는 수많은 샬롬의 파도들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했듯, 쑤원록 아이들이 그 파도들의 끝에서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났습니다. / 작은 섬 / 밀려오고 밀려간 샬롬의 파도들 / 그 수많은 파도들의 끝에서 만났습니다. / 파도의 깊은 미소에 가득히 반짝이던 / 눈부시게 푸르른 바다 / 그 사랑을

잘 자란 융이를 보며 모교회인 대저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섬과 같던 저에게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수많은 샬롬의 파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그 파도들이 이 땅의 작은 섬에 밀려가고 밀려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신짜요 베트남 - '가족'

2주 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의 제빵 재료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두바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아내는 아이들의 작은 꿈을 위해 그 성가신 과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라는 외마디 비명을 자주 지르는 아내입니다. 중요한 일을 깜빡하고 나서 지르는 비명입니다. 아내에게 혼자만의 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단비는 중학생이 되면서 국악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북을 치며 생긴 손의 물집을 보여주며, 표정은 마치 영광의 상처를 얻은 듯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강인이는 유치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 체험 시간에 배운 일본어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강인이는 오늘도 '곤~니찌와'입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ASK 센터의 학생들

Khoa와 Tuan 형제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믿음 생활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 온 형제들입니다. 두 형제가 훌륭히 졸업할 수 있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치민 참조은 광성교회를 통해 4년 동안 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두 형제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Kuong, Nhan, Chau, San이 음악 수업에 새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초청에 응해서 믿음의 자리에 방문하는 Huyen, Trinh, Mai, Huong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Nhu와 Ngoc이 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현지 교회, 대학/청년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학사관을 위한 재정과 환경이 마련되도록.

/ 엄준환 선교사

“함께라서 행복했던 하루”



10월 26일(주일)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의 주최 아래 필리핀 성도들과 중국 유학생, 연동의 성도들과 함께 오전 10시 나사렛예배실에서 이건희 목사님의 설교와 이호진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를 드린 후, 서울랜드에서 가을 야외활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 자연속에서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된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있기에, 서로 다른 색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한 편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서울랜드 소풍은 모든 이가 더욱 밝게 빛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평등하게 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주말 서울의 복잡한 교통 상황은 시위와 집회로 인해 더욱 혼잡했지만, 이날은 특별히 서울 마라톤 대회까지 열려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팀의 연합 소풍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는 교회 버스를 타고, 또 다른 이들은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사격 체험과 놀이기구를 함께 타며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함께 하는 점심 식사를 통해 진솔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학업과 과제 속에 지쳐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번 활동은 심리적 환기와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진 속에는 다양한 활동과 즐거움이 담겨 있었고, 그 미소만으로도 넘치는 행복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서울랜드 체험은 나이, 성별, 인종, 신앙 유무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단일한 색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더 크고 찬란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서로의 색을 섞을 때, 우리는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함께 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다문화 선교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문화 형제자매들과의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피택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사11:9)	새 친구 환영(이나라), 말씀놀이
	21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렘31:33)	말씀놀이: 사랑이 풍풍풍
	28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출15:2)	새 친구 환영(박지아), 말씀집중주일
10	5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요(출2:25)	성찬식, 추석명절놀이
	12	사랑의 땅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행2:46)	임산부 축복기도, 새 친구 환영(하은기) 연동역사교재 1과(사랑의 땅 보물찾기)
	19	누가 자라게 했을까?(고전3:6)	창립기념주일 교회 생일축하, 교사 월례회&기도회 연동역사교재 2과(씨앗이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요)
	26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요(미6:8)	종교개혁기념주일, 연동역사교재 3과(반짝반짝 믿음별 만들기)
11	2	새 영을 주시리라(겔11:19-20)	11월 생일 축하(송예주, 윤이담) 연동역사교재 4과(말씀으로 쑥쑥쑥_잔디인형 만들기)
	9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히12:2)	말씀놀이:성령의 열매 바람개비 만들기

/ 박윤신 부감



생일을 축하해요(송예주, 윤이담)


새 친구를 환영합니다(이나라, 박지아, 하은기)


말씀놀이_사랑이 풍풍풍


다 같이 교회 생일을 축하해요


연동 역사 교재_씨앗이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요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하나님께서 희망과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사11:9)	반별 공과활동
	21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렘31:33)	반별 공과활동
	28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겔 47:9)	반별 말씀암송 반별교제
10	5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행2:4)	10월 말씀송배우기, 송편 만들기
	12	사랑의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행2:46)	사랑의 땅 보물찾기
	19	누가 자라게 했을까요?(고전3:6)	말씀 공과활동
	26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요(막6:8)	반짝반짝 믿음별 만둘기
11	2	새 영을 주시리라(겔11:19-20)	11월 말씀송배우기, 씨앗인형만들기
	9	믿음으로 살아가요(히12:2)	반별 공과공부

/ 정윤정 부장


즐거운 말씀시간


반별 공과활동


송편 만들기


사랑의 땅 보물찾기 공과활동


씨앗이 자라요 공과활동



씨앗인형 만들기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세요(사11:9b)	공과활동
	21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렘31:33b)	공과활동, 교사월례회, 말씀암송잔치
	28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겔47:9절)	공과활동, 연동역사교재 교사 1차교육
10	5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행2:4)	생일잔치,추석 맞이 단체 활동, 연동역사교재 교사2차교육
	12	사랑의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행4:46)	연동역사교재 1과
	19	누가 자라게 했을까요?(고전3:6)	연동역사교재 2과 , 연동역사관 방문, 교사월례회
	26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요(미6:8)	연동역사교재 3과 , 말씀암송잔치
11	2	새 영을 주시리라(겔11:19)	연동역사교재 4과
	9	믿음으로 살아가요(히12:2a)	공과활동

/ 최정미 교사





참 잘했어요 어린이 종합발표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항상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을 함께 찾아요!!



2026년 우리 유치부 선생님으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사 11:9하)	반별 말씀 활동(공과)
	21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렘 31:33하)	반별 말씀 활동(공과)
	28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겔 47:9)	반별 말씀 활동(공과)
10	5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행 2:4)	명절 특별 2부 활동
	12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함께 성장하는 우리(행 2:42)	반별 말씀 활동(연동 역사탐방 1주차), 10월 생일잔치
	19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고전 3:7)	반별 말씀 활동(연동 역사탐방 2주차)
	26	하나님의 밭, 함께 심고 가꾸는 믿음의 삶(미 6:8)	반별 말씀 활동(연동 역사탐방 3주차)
11	2	하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겔 11:19)	11월 생일잔치, 연동 역사탐방 “공동체 활동” (연동 역사탐방 4 주차)
	9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히 12:2상)	반별 말씀 활동

/ 성창원 교사



10월 생일잔치



11월 생일잔치



연동 역사탐방 공동체 활동



즐거운 공과활동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물이 바다 덮음 같이(사 11:9하)	모범반 선정 포상
	21	하나님의 약속 연대기!(렘 31:33하)	공과 활동
	28	특종!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다(겔 47:9)	공과 활동
10	5	Who? 성령님(행 2:4)	추석 민속 놀이
	12	말씀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 함께 성장하는 우리 (행 2:42)	연동교회 역사공과(1주차)
	19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고전 3:7)	초등부 한강피크닉 및 양화진선교사묘역 방문(25일)
	26	하나님의 밭, 함께 심고 가꾸는 믿음의 삶(미 6:8)	연동교회 역사공과(3주차)
11	2	하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겔 11:19)	연동교회 역사공과(4주차)
	9	약속을 향한 마라톤(히 12:2상)	교사 모집 및 부서 홍보 활동

/ 김태정 부감


한강 및 양화진선교사묘역 방문


게임으로 배우는 연동교회 역사 공과


모범반 포상. 즐거운 간식시간



예배 중 질의응답! 저요!


다윗 찬양대의 찬양


연동교회 역사 공과 배우기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하반기 AWANA “첫째 계명”(마 22:37)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21	하반기 AWANA “말해 줄래?”(롬 10:13)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28	하반기 AWANA “등불을 켜라?”(마 5:14)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경기 페어플레이 시상 도입
10	5	추석 임시 어린이부 편성	추석맞이 특별활동
	12	하반기 AWANA “작은 자에게 한 것(마 10:40)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19	하반기 AWANA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26	하반기 AWANA “도끼를 가는 시간”(행 6:4)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11	2	하반기 AWANA “깨진 장독”(롬 12:18)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교회 마당 부서 소개 부스 설치 운영
	9	하반기 AWANA “당장 멈춰!”(딤후 1:7)	개회식 /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예배 / 시상

/ 윤종훈 부장



개회식



단체 게임 - 볼 릴레이



어와나 예배 찬양율동



예배 전도사님 말씀



시상식 - 핸드북 완성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너도 나도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사 11:1-9)	세례 입교 교육 시작, 여전도회 바자회 음식과 함께 반별 모임 환경선교사 특강 수강 모집(9/20)
	21	새 언약이 뭔가요?(렘 31:31-37)	세례 입교 교육 2주차, 반별 공과 모임
	28	회복의 시작(겔 47:1-12)	세례 입교 교육 3주차, 반별 공과 모임
10	5	불맛 나는 세상(행 2:1-13)	윤정현, 박웅찬, 이서윤 학생 입교 명절 민속놀이
	12	함께 세워진 연동교회, 함께 살아가는 우리(행 2:42-47)	연동교회 역사 공과 교재 특별 활동 1주차, 10월 생일 축하
	19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동역(고전 3:3-9)	연동교회 역사 공과 교재 특별 활동 2주차
	26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한 사람, 이상재(미 6:8)	연동교회 역사 공과 교재 특별 활동 3주차
11	2	돌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겔 11:19)	연동교회 역사 공과 교재 특별 활동 4주차, 11월 생일자 축하
	9	거리를 줄이는 예배(약 4:8)	야외예배, 야외 체육 활동 프로그램

/ 박성윤 교사



연동교회 역사 공과 활동





연동교회 역사 공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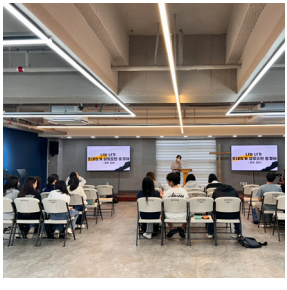


중등부 야외예배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14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삼하7:8~13)	기독교 가치관 교육
	21	구독료< 0원의 삶(렘31:31~37)	새친구 환영 3학년 조예지 (인도:고서현), 고등부 공동 기도제목 (시험, 수험생, 교사, 삶의자리, 건강과 가정)
	28	머리부터 발끝까지(겔47:1~12)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시작(10/4, 토)
10	5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다(행2:1~13)	성찬식, 10월 생일자 축하,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12	Thank You for Letting YD Begin(행2:42~47)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역사교육 - 연동, 걸음마(1주차:연못골, 모험의 시작)
	19	131년의 MVP는?(고전 3:6~9)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역사교육 - 연동, 걸음마(2주차:다섯 선교사)
	26	당신의 페메, 누굽니까!(미6:6~8)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25일(토) 교사 월례회 역사교육 - 연동, 걸음마(3주차:격변의 시대, 한 사람의 선)
11	2	마음 새로고침(겔11:14~21)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11월 생일자 축하 역사교육 - 연동, 걸음마(4주차:새 영을 주시리라)
	9	주만 의지해(잠3:5~6)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 고3 격려예배 고3 응원 (유년부, 청년부)

/ 이승원 부감



기독교 가치관 교육





연동, 걸음마(역사교육)



명절 특별활동





고3 격려예배

청소년주일학교, 연동교회 역사 교재 발간



연동교회가 만드는 연동 역사 교재의 시작

미래세대부(부장 여명선 장로) 청소년주일학교에서는 '자체 역사 교재'를 발간하였다. 이는 교회의 뿌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다음세대에 온전히 전수하기 위하여 시작된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사역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교육 현장의 눈높이와 실제 경험을 적극 반영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회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서의 연령별 특성과 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회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료가 되도록 했다.

집필자 : 권광호, 민지수, 신유진, 장판규, 전소망, 조준용, 최예원(이상 전도사), 표경림 목사
디자인 및 편집 : 윤새로미 성도 / **감수자** : 최기식 은퇴장로, 강영옥 은퇴권사

역사 교재 구성 및 교육

• 교육 과정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과정의 프로그램(매년 창립기념 주일이 있는 10월 4주간 진행)

• 내용 구성 : 주일학교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춰 영·유아·유치부(해피팀), 유년·초등부(드림팀), 중·고등부(비전팀) 세가지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역사·인물·비전을 다루고, 현장학습(연동교회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 교사 교육 : 교사들이 교회의 역사와 신앙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여, 교육 현장에서 다음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강의와 실습 후 피드백을 나누어 본다.

각 부서별 공과 활동

[해피팀]







매주 교회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이고 후속활동을 즐거워했다. 특히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에게도 전달되어 가정 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 교사들이 역사적·신앙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 교육과 가이드북을 강화할 예정이며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이어지도록 연계 활동 자료를 개발해 교회와 가정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드림팀]





아이들은 기자단 콘셉트와 맞춤형 교재 덕분에 역사 공부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웠다. 다만, 풍성한 활동에 비해 공과 시간이 조금 부족하여 아쉬웠다. 앞으로 기자단 콘셉트를 유지하며 인터뷰·미션 등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장할 계획이다.

[비전팀]





중·고등부는 보드게임과 방탈출 같은 체험형 활동을 통해 역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의 완성도가 높았던 만큼 시간 관리와 사전 준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교사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자료를 보강하고 연동교회의 역사를 신앙의 흐름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교재 기획자들의 소망

연동교회 역사 교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이들이 느끼고 참여하며 깨닫게 하는 신앙 교재로 '신앙의 뿌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며 이 작은 시작이 연동의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믿음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동교회의 역사를 지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료제공 및 도움: 오한빛 목사 / 정리: 박윤신 기자

어린이 종합발표회



9월 27일(토) 제33회 서울노회 어린이 종합발표회가 약수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는 배광미 회장(서울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 연동교회)의 인도로 우경수 권사(직전 회장) 기도, 이성권 목사(약수교회 부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용사들'(행 1:6~11)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 연동교회 유치부 어린이 8명이 참가하였다.

종목	수상	참가자
그리기	금상	하준수(6세)
	동상	윤희성(7세), 채하윤(6세)
찬양 율동	금상	김서하(7세), 남여름(7세), 이주아(7세), 이다은(6세), 최건(6세)



수상	수상	참가자
그리기	은상	하준수(6세)
찬양 율동	동상	김서하(7세), 남여름(7세), 이주아(7세), 이다은(6세), 최건(6세)

서울노회 어린이 종합발표회 결과, 금상 수상자 6명의 어린이가 11월 1일(토) 연동교회에서 열리는 제25회 서울시 강북지역협의회 어린이 종합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개회 예배는 박성례 회장의 인도로 박정란 수석 부회장 기도, 김주용 목사(연동교회 위임목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요 8:32)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 날 연동교회에서 참가한 어린이 6명이 모두 수상하였다.

2025년 어린이 종합발표회에 참가했던 모든 어린이와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 및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수상한 어린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두 대회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린다. / 유진희 권사(유치부 부장)

연동 토요 악기교실





2024년 12월 21일(토)에 개강했던 '연동 토요 악기교실'이 2025년 11월 22일(토)에 종강을 했다. 클래식 악기로 바이올린과 플룻, 그리고 전자 기타까지 세 가지 악기로 4개 반을 운영하며 총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1년 동안 매주 참여 인원은 유동적이었으나 청년부 선생님들은 보강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가르쳤고, 학생들은 바쁜 일정 중에도 열심히 배우며 연습했다. 그 결과 악기 실력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선배와 후배라는 특별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

연동 토요 악기교실은 주니어앙상블 단원의 증원과 교회 인근의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를 위해 어린이전도단에서 운영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운영 결과는 클래식 악기반 중 4명이 8월에 열린 주니어앙상블 캠프에 참여한 후 현재 주니어앙상블에 입단을 했다. 또한 교회 인근에 사는 3명의 학생은 토요 악기교실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였고, 주니어앙상블에도 1명이 입단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소모임처럼 모여서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며 참여 아이들도 격려하고 친교도 나누었는데, 어린이 주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떡볶이 파티를 하면서 교회 이웃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 어머니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간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이었다. 마지막 11월 22일 종강일에는 그동안 연습했던 곡들을 연주해 보고, 연습 과정도 동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학부모들과 은혜로운 종강 파티로 마쳤다. 1년 동안 연동 토요 악기교실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고 간식과 물품으로 도와주신 학부모와 교우들, 미래세대부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기초반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연동 토요악기 교실'은 2025년에 종강을 하지만, 앞으로는 심화반과 전공자반 등이 만들어져서 더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우고, 악기로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망한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레슨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기도한다. / 양진실 집사(어린이전도단 단장)



일렉기타반



클래식 악기반



바이올린반

2026년부터 교구에 변화가 옵니다



2026년도부터 교구 운영에 변화가 옵니다. 그동안 1~5교구로 나눠져 운영되어온 교구가 일반 지역 중심의 1~4교구와 씽씽교구의 이원화로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씽씽교구는 거리 대신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구역원 간의 유대감 증대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위원회(위원장 방영민 장로)에서는 11월 16일(주일) 오후 1시 가나의 집 다사랑조이홀에서 기존의 씽씽연동구역 성도, 청소년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신혼부부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5교구(씽씽연동구역) 개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아래에 기획위원회의 교구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Q & A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교구 개편에 대한 Q & A>

Q 기존 5교구에 있던 8개(성북2, 한신2, 연지, 원남, 신내, 도곡역삼, 일산, 분당)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의 1~4교구에 분산되어 재편될 예정입니다.

Q 씽씽교구의 구역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A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이므로 자녀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역이 편성됩니다. 기준은 첫째 자녀 연령입니다(중등, 고등 자녀를 둔 가정/ 유년, 초등 자녀를 둔 가정/ 영아, 유아 자녀를 둔 가정/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구역은 대상자 전수조사 후 구역수를 확정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씽씽교구 구역원은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일반구역 구역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Q 씽씽교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교구장은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오한빛 목사)가 겸임하고, 주일학교 지도 전도사와 공동 사역합니다.

구역 모임은 매주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월 1회는 모이도록 합니다. 구역모임이 거리 중심이 아니므로 주일에 모임을 하는 구역을 위해 공간을 제공할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구역 공부는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에서 만드는 온라인 교재로 진행하는데, 모임 당일에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 온라인 교재를 열고 그 자리에서 나눔을 합니다.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의 온라인 교재는 영성과 육아와 경제적 문제 등 현 시대를 사는 또래 교인들끼리 말씀을 나누며 공감 받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과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Q 리더들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A 구역이 세워지면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Q 현재 교회에는 청년부에서 20대 청년들과 섞이기 힘든 30대 중후반의 싱글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씽씽교구에 흡수되나요?

A 그렇습니다. 씽씽교구에서 또래들과 나눔 할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입니다.

Q 이렇게 교구를 개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씽씽구역은 구역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만들어졌기에 구역원들은 그동안 자신이 속한 구역이 구역인지 자치회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역을 확정, 재편하고 교육 받은 리더들을 세워 이런 혼란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로 구역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유대감 강화로 이어지도록 개편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Q 이를 위해 현재 기획원원회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들은 여럿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새로운 교구 개편에 대해 현재 씽씽연동구역원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시행까지, 시행 후에라도 성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3040세대들의 교회 정착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3040세대와 윗세대들 간의 유대와 조화입니다. 젊은 세대들과 장년세대들이 단절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박현미 편집장

〈교구개편에 대한 소감과 건의〉

박성우3 집사(씽씽연동1구역) : 저는 연동교회가 3040세대를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맡은 교구 공동체와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의 특성상 3040세대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교회에 오후에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어린이부가 '어와나'로 그 역할을 도와주시고 있으나 중고등학생들 경우 머물 공간이 애매해 이 부분도 고려되길 바랍니다.

임경선 집사(씽씽연동9구역) : 이번 교구개편 설명을 들으며, 목사님들과 당회에서 교회를 더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는 누구에게나 낯섦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3040세대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교구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 자리잡혀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몸된 교회로서 끝까지 사랑 안에서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후렴을 지나 브릿지로 넘어가는 리듬 타는 "유기정 피택안수집사"

드럼sticks보다 사람 이야기를 더 잘 다루는 남자,
3남선교회 회장에 찬양팀 드러머,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보험 비즈니스맨!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표본 같은 유기정 피택안수집사를 왓두유뽀리빙에서 만나봅니다.
그런데...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즐거운 리듬’이라고 하네요^^



요즘 드럼 리듬 말고, 인생 리듬은 어떤지요?^^
요즘 생활도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나의 인생의 리듬을 노래로 비유하자면 후렴을 지나 브릿지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새로운 도전거리를 모색하는 중이예요.

찬양팀 드러머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하놀과 다올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어요.
처음 드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즐겨듣던 노래를 나도 직접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마침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밴드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3남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나만의 '유쾌한 리더십' 비결이 있다면요?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주위에(비록 힘든 상황이어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 있게 참여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메리츠화재에서 보험비즈니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 함께 밴드를 했던 선후배들과 오랜만에 다시 뭉쳐서 밴드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행 중에 최근에 다녀온 곳 중 '다시 가고 싶은 곳 기억에 남는 곳 베스트3' 꼽아주신다면!

여수! 통영! 이집트! 이렇게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이집트 성지순례 시내산(2025.11)



이집트 성지순례 성캐서린 수녀원(2025.11)

드럼, 일, 남선교회, 여행까지~ 정말 다채로운데요. 주중 주말에 즐기는 취미나 나만의 에너지 충전 비결이 있다면?

음악을 좋아하다보니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고 영화도 자주 봅니다. 밴드 합주와 연습 후 뒷풀이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의 하나죠.ㅎㅎ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하겠네요. 큰아이와의 소원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족들 간의 모임과 대화가 따라서 늘어나서 기쁨과 은혜를 느낍니다.^^

함께 리듬 타고 싶은 유기정 피택안수집사(연희홍제구역)와 함께한 브릿지를 넘어 클라이맥스 타는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제약 분석연구원 서호석 청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고등학교 3학년, 어떤 분야가 더 흥미롭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생명'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생명을 전공하며 "취업을 하려면 대학원 진학이 필수다", "연구원 일을 하려면 대학원은 당연히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학교 3학년부터 연구실 인턴을 하며 진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는 연구실 분야를 선택하는 것에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부에서는 넓은 분야를 배우지만, 대학원 연구실은 특정 주제에 매우 좁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타겟이 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심이 생겨 이 분야로 진학하게 되었고,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석사 기간 동안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라는 분석 장비를 직접 다루면서 복잡한 시스템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오직 이 장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 분석기기를 활용해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약회사의 분석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약회사에서 분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의약품에서 특정 불순물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법을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제형과 제품군을 분석해보며 경험을 넓히고, 나아가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약품 개발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고백하며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대학원 과정은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고, 두려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원 생활 동안 연동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분야를 선택해서 나아가든 분명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제약 분야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관련하여 고민 중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7559-035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수학교사, 솔리스트의 남편,
그리고 어느새 연동교인이 된 "최정욱 성도"



최정욱 성도(씽씽연동9구역)

2023년 연말 연동교회에 첫발을 딛은 이후 현재 씽씽연동9구역에서 신혼부부들과 활발한 나눔을 이어가며 어느새 연동교회에 흠뻑 빠져든 최정욱 성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낯선 듯 낯설지 않았던 연동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 잡고 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수학교사, 솔리스트의 남편, 그리고 이성은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아내와의 연애시절이었던 2023년 연말, 처음으로 연동교회에 발을 딛었습니다. 조심조심 교회 뜨락을 밟으며 연애와 예배를 이어가다 올해 초 연동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교육을 이수했고, 6월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현재 게일찬양대 솔리스트인 이예일 성도이고, 그는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동료 교사'이며, 게일찬양대 지휘자인 이성은 목사의 사위입니다. 교단 안팎에서 신앙과 교육 두 영역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명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예배는 제가 처음 교회를 좋아하게 된 예배와 닮아 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중학교 시절 매주 불렀던 찬양과 찬송가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준 은사님을 통해 "교사"라는 소명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연동교회와는 아내와 교제하며 자연스레 이어져, "처음에는 찬양대원인 아내를 기다리며 2층 구석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가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성도들과 악수를 하신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지요." 그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새신자 등록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게일찬양대에서 봉사하며 연동교회 테니스 동호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씽씽연동9구역'에서 신혼부부들과 교제하며 신앙을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서 점점 연동교인으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동교회에 대한 가장 깊은 인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3부 예배의 찬양과 설교, 그리고 본당의 분위기에서 중학교 시절 좋아했던 예배의 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예배 형식과 3부예배 형식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동교회에 처음 참석한 날 들은 설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설교가 기다려진 건 연동교회가 처음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던 빛, 기도송과 축도송이 흐르던 순간은 그의 신앙에 확신을 더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수업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실천하는 본받을 만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자신의 신앙 목표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편안해지고 안일해질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우리 가정의 사랑과 건강, 행복을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5개월을 맞은 신혼부부로서 그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가정이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사랑과 건강, 행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내가 성악을 전공한 만큼 아침에 늘 찬양으로 눈을 뜨고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는 일상을 맞으니 기도의 작은 응답은 이미 받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웃으며 덧붙입니다.

“연동교회는 새신자들에게 부담 없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는 연동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왔을 때 김주용 위임목사님의 룻기 설교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설교가 기다려졌고, ‘기도에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과도한 친절과 아는 척을 하지 않아 오히려 적응하는 데 편했습니다.” 연동교인들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교회를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연동교인들께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물으니, “테니스 동호회와 게일찬양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ㅎㅎㅎ” 조용하지만 힘이 들어간 목소리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신혼부부, 최정욱, 이예일 성도가 연동교회에서 자녀를 키우고 신앙을 키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크리스천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난 믿음의 걸음



새벽 시내산에 올라 산상예배를 드린 후 일출을 감상하고 하산

11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11박 12일), 총 30명의 연동교회 순례단은 성경의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직접 체험하는 이집트-요르단 성지순례를 디녀왔다. 이번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출애굽의 여정을 현재의 삶 속에 되새기기 위한 영적 순례였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사대 만에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오리라"(창15:13-16)는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은 수백 년 후 역사 속 실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순례단은 바로 그 "약속의 땅, 애굽(이집트)"을 직접 밟으며, 눈앞에 펼쳐진 세계 최강의 제국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일정에는 홍해, 시나이반도, 시내산, 느보산, 르비딤, 숙곳, 라암셋, 놉, 페트라, 와디럼, 사해, 제라쉬, 암만, 베다니 등 성경의 주요 현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현장들에서 말씀 묵상, 찬양, 공동체 예배,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순례단 관계자는 "우리는 3,500년 전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며 "이번 순례가 단지 발로 걸은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걸은 은혜의 여정이 되었다"고 전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기억하는 길,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 그 약속의 땅을 찾아 믿음의 길을 걸은 30명의 발걸음 위에 이제 또 하나의 출애굽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 박현미 편집장

***순례단 명단(총 30명)**: 계대윤 목사, 정병일·이문영 부부, 김성영·임정희 부부, 장동철·민병애 부부, 김수연1, 김예주, 김은희1, 김향임, 남미열, 박수현, 박승란, 박정숙4, 석찬복, 심현숙, 여명선, 유기정, 윤영심, 윤희숙, 이규성, 이은영1, 장연화, 장영순, 장진희, 정수연, 정영희, 최은주, 황진명(직분, 성별 생략/ 가나다순)



덧없는 파라오의 영광을 증언해준 룩소르신전 앞에서



고대 이집트의 성소 중 성소로 불린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장제전에서

〈소감〉

이번 이집트·요르단 여정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입니다. 시내산의 일출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경외를 잠시나마 느꼈고, 느보산에 올랐을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자체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제 삶에도 여전히 광야가 있지만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도 제 길을 비추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그분과 동행하는 출애굽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유기정 피택안수집사(연희홍제구역)



싯딤나무(법궤) 아래에서

제4여전도회, 후원 교회(만운, 벌방) 방문



9월 19일(금)~ 20일(토), 4여전도회(회장 장의숙 집사) 회원들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후원 교회 2곳(만운.벌방교회)을 심방하였다. 19일 교회를 출발하여 안동에 도착한 회원들은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에서 1박을 하며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 20일 오전 만운교회(경북 안동, 임성령 목사)로 향했다. 교회 도착 후 목사님을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곳곳을 둘러보았다. 함께 기도제목을 나눈 뒤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벌방교회(경북 예천, 권철 목사)로 이동하여 목사님을 만나 예배를 드렸다. 이후 교회를 둘러보고 함께 기도제목을 나눈 뒤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심방을 통해 후원하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교회의 사역을 전하여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지난 9월 14일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선교비(각 교회별 100만원씩)를 전달하였다. 4여전도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길 기도한다./ 장의숙 집사(4여전도회 회장)

유년부와 함께한 '소리터' 버스킹





9월 21일(주일) 가을햇살이 아름다웠던 주일 아침, 교회마당에서 소리터 버스킹이 있었다. 소그룹 소리터는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호흡과 발성연습을 비롯해 찬양곡을 열심히 연습한 덕에 소리 내는 것에도 자신감이 생겨 이날 회원 모두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별히 이날은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소리터"라는 콘셉트로 기획되어 유년부 아이들 4명으로 구성된 게스트팀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다희, 김예서, 김예승, 기하윤 어린이들이 신나는 율동과 함께 찬양할 때는 교회 마당이 들썩이며 관객 모두가 엄마미소 아빠미소였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마무리된 아이들의 찬양소리는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 앞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찾고 만드는 소리터의 열띤 활동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 정경아 피택권사(유년부찬양대 지휘자)

추석 합동 추모예식



10월 4일(토) 오전 11시 연동동산에서 '추석 합동 추모예식'이 있었다.

김진호 장로의 인도로 찬송(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기도(김효식 은퇴장로), 성경봉독(임인수 안수집사)이 있은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욥 23:10)'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말씀을 통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후 찬송(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추모 예식을 마쳤다. / 박윤신 기자

제110회 예장 통합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정기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9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의 현실은 여전히 깊은 분열과 갈등, 시대적 변화에 대한 수용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총대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589명, 장로 585명 총 1,174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신임 총회장에 정훈 목사가 만장일치 추대되었으며, 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등 주요 임원들도 단독 후보로 추대되어 교단 내 화합과 단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 총대 법제화 요청 부결

이번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여성 총대 법제화 청원은 결국 투표에서 단 2 표 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여성 총대 참여는 성경적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교단 전통과 보수적 신학 해석을 들어 "교회의 성별 역할 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질서"라고 맞서면서 결국 부결되어 교단 내 성평등 의식이 매우 제한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2. 총회연금재단 운영 개혁요구 충돌

연금재단을 둘러싼 재정 투명성 문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엄격한 개혁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일부 총대는 기존 연금재단 운영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감사 도입 및 재정 구조 전면 개편을 주장했으나, 기존 운영진 지지층은 변화는 필요하나 과도한 개혁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발하며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3. 이단 및 사이비 조사 논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통일교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재결의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찬성 측은 교단의 정통성과 신앙 순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교단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고, 반대 측은 이러한 이단 결의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교단 내 분열을 심화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향후 교단내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와 내부 분열이 심각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총회 재판국 개혁

총회 재판국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재판' 논란 해결을 위해 제도 개혁이 논의되었으며, 재판국원의 교체 권한 강화 및 임시당회장 제도 개선, 위임목사 청빙 요건 보완 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체적으로 교단 내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 사이의 갈등이 고스란히 표출된 자리였습니다. 여성 총대 법제화처럼 조금의 표 차이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안건들은 교단 내 갈등의 심층적 원인들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재단 문제와 이단성 조사 이슈는 교단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개혁으로 평가되나, 주요 안건의 논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교단이 정치적 분열과 신앙적 갈등이 한국교회가 정치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여성 차별, 고질적인 재정 부패, 목회자 비위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총회장 정훈 목사는 취임사에서 "사랑은 허물을 덮고 치유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화해와 용서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단 통합과 신뢰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와는 달리 내실 있는 개혁과 교단 구성원 간의 진정한 대화 없이는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총회였다는 것이 이번 총회의 총평입니다.

혼란과 갈등이 충돌하고 사랑이 사라진 한국 교회의 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18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직면하였으며,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통해 공동체 내의 평화와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교회와 교단 내 갈등을 해소하고 개혁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 임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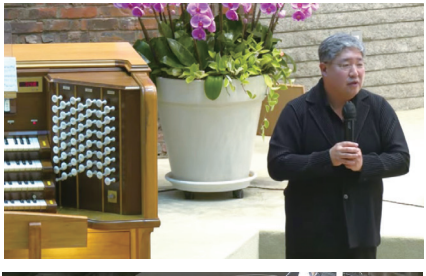
부용찬양대 야유회



9월 21일(주일) 2부 예배 후 부용찬양대(대장 강석주 피택장로)는 포천에 위치한 내촌은혜수련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41명이 참석했고 보쌈, 족발, 치킨, 피자와 특별히 김동률, 임수민 집사 부부가 전날부터 수비드 수육을 준비해서 만들어준 챠슈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이유선 집사 아버지(내촌은혜수련원장)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포도를 먹었다. 장진욱 형제의 진행으로 게임을 했고, 김은주 집사의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단체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많은 인원의 참석과 가족들, 손자, 손녀까지 함께 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신현철 집사(부용찬양대 총무)

김지성 교수 초청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9월 24일 수요기도회는 예배 후 김지성 교수 초청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계대윤 목사가 '생명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편 150: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서 김지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는 교회 오르간 연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모든 곡들을 해설한 후 연주를 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첫 회중 찬송가로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시작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등 익숙한 찬송가 곡이 연주되었고, 특히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은 1절부터 7절까지 오르간 연주와 회중 찬송이 번갈아 가며 진행됐다. '피난처 있으니'에 이어 마지막 곡은 즉석에서 신청을 받은 '참 아름다워라'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의 두 곡을 연결하여 즉흥 연주를 하였고, 청중들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연주회를 마쳤다. 이 날 오르간 연주회를 통해 350년 전의 루터교회 예배를 경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양진실 기자

연뫼동이, 창립 12주년 기념 산행







등산 동아리 '연뫼동이'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10월 3일(금), 뜻깊은 기념 산행을 진행했습니다. 약간의 비가 내린 가을 아침속에 푸른 하늘과 쾌청한 공기가 감도는 개천절, 회원들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사패산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12년 우정의 발자취, 사패산에서 빛나다

'연뫼동이'는 산을 사랑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연동교회 교우들의 모임으로, 벌써 12년간 꾸준히 산행을 이어오며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 산행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사패산 둘레길. 특히 사패산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북쪽 끝에 자리하며, 도봉산과 포대능선으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조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날 회원들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회룡골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호암사 주변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걷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잘 정비된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때때로 만나는 바위 능선과 기암괴석들은 산행의 소소한 재미와 함께 북한산의 웅장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패산 둘레길의 아름다운 경치처럼, 우리의 우정도 더욱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준일 은퇴집사(연뫼동이 대장)

가을 햇살 아래, 땀방울과 웃음꽃

참석한 회원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둘레길을 완주하며 12년간 쌓아온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건강한 산행을 다짐했습니다. 완만한 길과 경사진 구간이 적절히 섞인 둘레길 코스는 모두에게 무리가 없었으며,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의정부 지역의 원조 순대국의 맛집을 찾아 창립 기념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나눈 덕담과 웃음은 '연뫼동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뫼동이'는 단순한 등산 모임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뫼동이의 산행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형기 피택장로(연뫼동이 총무)

임산부 축복기도





10월 12일(주일) 영아부(부장 이현승 피택권사)에서는 영아부 예배를 마친 후 임산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최지인·박기현 성도의 축복이(태명)와 김혜원·류호승 성도의 꼬물이(태명)는 각 가정에 첫 번째 선물로 온 귀한 자녀이다. 환영인사를 받으며 앞으로 나온 축복이와 꼬물이 가정을 소개한 뒤, 영아부 부모님과 선생님, 아이들은 축복송(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을 부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온 태아를 위한 편지를 읽은 뒤 영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영아부 표경림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사진 김세현 집사

성례주일 세례식



10월 4일 성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 권순휘(남, 광진중곡구역), 김영빈(남, 씽씽연동6구역), 이성자(여, 고양구역), 이소정(여, 씽씽연동6구역), 정현주(여, 고양구역), 주곤요(남, 중국어예배반)

입교 : 권순찬(남, 광진중곡구역), 윤정현(남, 중등부), 박웅찬(남, 중등부), 이서윤(여, 중등부) / 김종은 기자

제3여전도회, 제3남선교회 러브릿지온 봉사



10월 11일(토) 3여전도회(회장 김경미 권사)는 회원 16명과 다음 봉사 담당인 3남선교회 회원, 씽씽연동구역원 및 자녀들과 함께 창신동 쪽방 윗마을, 아랫마을을 5개 조로 나눠 30여 가구에 러브릿지온 봉사를 다녀왔다. 오후 12시 30분 가나의 집(다사랑조이홀)에 모여 다양한 생필품(컵라면, 커피믹스, 각티슈, 햇반 등)을 담은 한 꾸러미의 선물에 우리의 사랑도 담아 삼삼오오 동대문 뒤편 낯선 길들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혹여 한 집이라도 놓칠까 사랑의 발걸음을 했다.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혹 방문한 가구가 외출 중이면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한 마디의 말과 정이 더 그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터에 계셔서 뵙지 못한 많은 분이 돌아와 저녁에 방 문고리에 걸린 선물꾸러미와 따뜻한 한 줄의 메모로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라도 잊길 바란 하루였다./ 이미열 권사(3여 부회장)



11월 8일(토) 3남선교회(회장 유기정 피택안수집사)는 회원 13명과 다음 봉사 담당인 4여전도회원 등 총 23명이 함께 러브릿지온 봉사를 다녀왔다. 오후 12시 가나의집 다사랑조이홀에 모여 컵라면, 즉석밥, 캔참치 등 먹거리와 여러 가지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들은 승합차에 실어서 모임 장소로 보내고 회원들은 20여 분을 걸어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30여 가구를 5개 조로 나누어서 방문했으며, 소요시간은 반시간이 채 안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3남선교회 회원들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생활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빨래 등)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지만 교회 인근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음에도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류창현 집사(3남 부회장)

‘연못골’ 편집부 하반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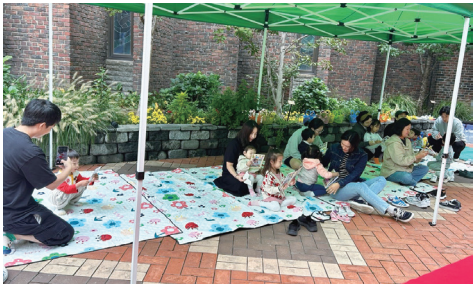
10월 9일(토) 출판선교팀(팀장 박현미 권사) 연못골 편집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이경아 기자의 공간숲 공유사무실에서 기자들과 함께 하반기 워크숍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진행된 연못골 소식지에 대하여 기자 각자가 돌이켜보며 의견개진 및 개선안, 기타 교인들의 피드백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그후 2026년 계획에 대한 열띤 논의와 신규 코너, 효과적인 편집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다./ 진상협 기자

131주년 교회창립 특별새벽기도회



10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131주년 교회창립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용서해야, 소망있다”라는 주제로 김주용 위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첫째 날 ‘용서해야, 소망 있다(창 50:15-21)’, 둘째 날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시 130:1-8)’, 셋째 날 ‘용서는 삶의 변화다(마 18:23-35)’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1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연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 박윤신 기자

연동 숲속 아기학교 8기 수료식



10월 18일(토) ‘연동숲속아기학교 8기’수료식이 있었다.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10월 4일 추석 연휴) 5주 동안 ‘하나님 닮은 연동아이(창1:27)’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코, 입, 귀, 손 그리고 5주차에는 예수님이 머리되시는 내 몸을 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아기학교 8기에도 지난 7기처럼 자녀들과 떨어져 부모들만 모여 목사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주는 예배를 드린 후 교회 마당으로 나와 미니 농장 체험 활동을 한 뒤 야외에서 수료식을 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커진 아이들은 혼자서 당당히 레드카펫을 걸어 나와 수료증과 선물을 받았다. 이후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다. 아기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교역자들, 각자의 달란트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 함께 한 아이들과 양육자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박윤신 기자

YD 샌드위치 콘서트



10월 29일(수) 정오 12시 국내선교부(부장 : 이호진 장로) 직장인선교팀(팀장 : 강석주 피택장로) 주관 교회 주변 직장인들을 위한 YD 샌드위치 콘서트가 더 게일홀에서 있었다. 김주용 위임목사님의 인사말씀 후 시작된 콘서트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는 넬라판타지아 연주하고 간증과 함께 5곡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송솔나무 선교사는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 등 OST에도 참여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콘서트에는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주회후 연주시 사용했던 휘슬과 교본, CD등을 판매했다. / 김종은 기자

교회창립131주년기념 축하음악 예배 및 130년사 헌정식





10월 19일(주일) 오후 예배는 연못골찬양대가 주관하는 교회창립 131주년 기념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연못골찬양대 대장 양연화 권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송가 95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을 부른 뒤 연못골찬양대 서기 윤경열 안수집사의 기도와 베이스파트장 진상협 집사의 말씀 봉독(마6:10) 후에 김주용 위임목사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처럼"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주님은 내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일곱 곡의 축하찬양이 이어졌다.



[축하 찬양곡]

1. 주님은 나의 소망(민유리)
2. 여정(손경민)
3.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김인식)
4. 기도(David Foster)
5. 주를 찬양할지어다(W. A. Mozart)
6. 내 삶의 이유라(이권희)
7.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민섭)

곧이어 3부 순서로, 130년사 헌정식이 있었다. 130년사 경과보고를 기념 준비위 서기인 김대진 장로가, 130주년 헌정은 기념 준비위 대내분과위원장 김웅종 장로가, 감사패 증정은 김주용 위임목사가 안윤성 은퇴장로에게, 기념인사는 기념 준비위원장 류관식 장로가 맡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주용 위임목사가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상협 기자





피택자 헌신예배



10월 26일(주일) 오후예배는 피택자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피택자 36명(장로 8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8명)은 6월 22일(주일)부터 베들레헴예배실에서 항존직으로서 알아야 할 과목들로 매주일 강의를 들었고, 필독서 과제발표, 현장학습, 종합시험, 영성금식수련회 등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날 앞으로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다. 강석주 피택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이규진 피택안수집사의 기도, 김이선 피택권사의 성경봉독(빌1-11)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 뒤 김인교 피택안수집사의 간증과 피택자 일동의 특송(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행되었다. 피택자들은 12월 14일(주일) 임식 예식을 앞두고 있다. / 박현미 편집장

〈피택자 교육과정과 헌신예배를 마친 소감〉

강석주 피택장로 : 이번 피택자 교육과정은 개인적 관점의 신앙 및 필요 지식의 준비라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했지만, '피택자 공동체'라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며 함께 준비되어간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초점으로 모아져 갈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어려울 땐 그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동력자를 얻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규진 피택안수집사 : 부족한 저를 피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모든 교우님께 감사를 드리고 피택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떨리는 마음을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대진 피택권사 : 매주일 교육과 과제제출, 시험, 수련회… 분주한 삶 속에서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상을 벗어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수련회를 마친 후 헌신예배를 드리고 나니, 의무감에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10월 26일, 11월 2일 두 주간에 걸쳐 교회 마당에서 사회봉사부(부장 박재천) 주관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가을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쌀쌀한 날씨였지만, 사회봉사부가 전날부터 준비한 생강차를 교인들과 나누며 모금행사가 따뜻하게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쌀 91kg, 봉헌 395만 5,000원이 모금되어 봉헌금으로 쌀 1,270kg을 구입, 총 1,361kg의 쌀을 11월 14일(금) 종로5,6가동주민센터, 등대교회(쪽방선교), 다-품, 반석교회, 베데스다선교회, 따뜻한 밥상과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전달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관심과 참여, 후원을 해주신 교인들께 감사드린다.

/ 김인교 피택안수집사(사회봉사팀 총무)

여전도회찬양대가 선교찬양제에 다녀왔어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45회 선교찬양제가 12팀이 참가한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 , 2부 음악회로 진행되었는데 연동교회 여전도회찬양대(대장 김인혜 권사)는 50명이 참여했다. 각 교회의 간단한 소개에 맞춰 입장해 각기 다른 색깔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한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갔다. 최은복 권사가 지휘하고 김진 권사의 반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곡을 찬양한 연동교회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열차를 탄 기분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나눴다. 모든 참가자의 찬양이 끝난 후 함께 화합하는 한마음으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기에 모든 참가팀에게 상이 수여되었고 이어지는 행운권 추첨으로 기쁨을 더했다. 천국잔치와도 같았던 이번 찬양제를 통해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함께 화합의 장을 이루며 모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응원과 격려를 위해 함께 자리를 지킨 목사님들과 여전도회 임원진들이 있었기에 더욱 힘이 되었다. / 원영숙 권사(여전도회찬양대 서기)

11, 12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10	31일(금) - 11월 1일(토)	중보철야기도회(강화수양관)
11	2일(주일)	청년부 정기총회(청년예배 시)
	3일(월) - 15일(토)	이집트 - 요르단 성지순례
	9일(주일)	일대일 제자훈련 수료예배(오후예배 시)
	13일(목)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오전 8시 40분, 나사렛예배실)
	16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오색가을찬양예배(오후예배 시)
	22일(토)	청소년주일학교 교사대학(오전 9시, 본당)
	28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30일(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 성경통신부 수료예배(오후예배 시)
12	4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새가족 만남의 날(오후 1시, 베들레헴예배실), 새가족 수료식(오후예배 시)
	12일(금)	교구 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13일(토)	4남선교회, 4여전도회 러브릿지온 봉사
	14일(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 은퇴, 추대 및 임직예식(오후예배 시) 신임집사교육1
	21일(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발표회 및 수료예배(오후예배 시)
	25일(목)	성탄절, 온세대예배 및 성탄절 칸타타(오전 11시, 본당)
	28일(주일)	송년주일
	31일(수)	새해맞이예배

청소년주일학교 역사교재 전시 및 부서 홍보



11월 9일(주일), 16일(주일) 2주 동안 청소년주일학교(교장 여명선 장로)에서는 교회 마당에서 주일학교 역사교재 전시 및 부서 홍보를 진행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각의 부스를 마련하여 올해 처음 발간된 연동교회 역사 교재 및 아이들의 활동 작품, 활동 사진 등을 전시하였으며 교사 모집을 위해 홍보 및 신청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본부에서 티테이블을 마련해주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도 제공되었다.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리며 청소년주일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박윤신 기자

제1여전도회 수련회



10월 30일(목) 제1여전도회(회장 박혜영 권사)는 우이동 하이그라운드 제빵소로 79명이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건희 목사는 '간기도감과 낙심금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쾌청한 가을날씨와 수줍게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과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 최고의 보양식 오리백숙, 박혜영 회장의 철저한 준비와 양연화 권사의 레크리에이션, 풍성한 선물, 사랑의 섬김이 있는 완벽한 가을 향연이었다. / 윤희 권사(1여전도회 교육부장)

'연뫼동이' 정기 산행



11월 1일(토) 소그룹 '연뫼동이' 회원 9명은 과천대공원 동물원 옆의 산림욕장 둘레길로 정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으로 둘레길을 오르기 시작해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붉게 물든 단풍 나무들의 피톤치드향이 듬뿍 든 숲길을 걸었습니다. 선녀 숲속길을 지나 전망대에서 간식을 나누어먹었고, 호숫가 옆 오솔길을 걸어 단풍 숲을 지나 식물원 길로 내려 왔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야외 식탁이 멋지게 차려진 식당에서 산채비빔밥, 우거지쇠고기국밥, 순대국밥으로 배를 채우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늦은 점심까지 함께한 회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 김형기 피택장로(연뫼동이 총무)

희로회 단풍야유회



11월 10일(월) 월례회로 모인 희로회(회장 조용상 은퇴장로) 20명의 회원들은 드보라의 방에서 예배(설교: 이진우 목사)를 드리고 원당에 있는 '풍천장어'에서 중식을 한 후,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단풍이 짙은 호숫가를 산책하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7년 창립한 희로회는 현재 매월 둘째 월요일 10시에 정기적으로 드보라의 방에서 '월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노년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문화유적 답사와 걷기 등 건강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65세 이상의 성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김효식 은퇴장로(희로회 총무)

추수감사주일 오색가을 찬양예배


소리터


하기폰 오카리나


다문화선교팀


토브 팬플룻


주니어 콰이어/주니어 앙상블


김보림 성도


박민선 집사


교역자


다함께

11월 16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오후예배는 오색가을 찬양예배로 드렸다. 1부는 하놀찬양팀의 찬양, 김성영 장로의 기도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가 '언젠가 찾게 될 감사의 문(요16:22-24)'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정경아 피택권사의 사회로 8개 팀의 다양한 모습의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 이지원 기자

	곡 명	공연팀
1	나는 어린양을 따르리/우리 함께 모여	소리터
2	선한능력으로	하기폰 오카리나
3	아 왜?/ Way maker	다문화 선교팀(필리핀, 중국)
4	감사해	토브 팬플룻
5	Thanks Thanks Thanks Jesus	주니어 콰이어/주니어 앙상블
6	판소리 : 춘향가 중 사랑가	김보림 성도
7	피아노 연주 : 찬송가 재즈	박민선 집사
8	풍선	교역자 일동

회계계수팀 야유회



11월 15일(토) 인천 왕산해수욕장과 그 주변 일대로 회계계수팀(팀장 오길환 안수집사) 회원들이 야유회를 다녀왔다. 오전 9시경에 교회에서 출발해 현지에서 이른 점심을 먹었다. 해변 경치를 즐기고 점심과 모처럼 자연과 함께 서해 바다 경치와 주변 경관을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회계계수팀 야유회는 작년에는 바쁜 관계로 지나쳤는데 모처럼 기회를 만들어 다녀왔다. 날씨도 포근한 가을 햇살과 함께하였고 늦가을의 정취를 맘껏 즐기며 다녀올 수 있어 감사했다. / 진상협 기자

일대일 제자훈련 수료예배



11월 9일(주일) 오후예배시간에 본당에서 일대일 제자훈련 수료예배를 드렸다. 새가족 6팀, 일반 17팀 등 총 23개 팀이 참여했으며, 특히 항존직 피택자 전원이 훈련을 마친 점이 큰 의미를 더했다. 새가족반과 일반성도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자의 신앙 여정에 맞는 양육을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새가족은 기초를 견고히 세우고, 일반 성도들은 더욱 깊이 있는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순서 중에는 오랜시간 양육사역에 헌신한 김영옥 은퇴장로, 김정숙 은퇴장로, 유명숙 공로권사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이들의 묵묵한 수고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올해 수료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마침표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 박종화 피택장로(일대일제자훈련부 부장)

<수료자 명단(괄호 안은 양육자)> (가나다순, 직분 생략)

새가족반(6팀): 권은영(김정혜), 김진아(박미경), 마정화(정금실), 박수현(유명숙), 조혜정(정금실), 홍성기(김진양)

일반 성도반(17팀): 김수진(김인혜), 김인교(민홍기), 김지영1(유연숙), 김태곤(김형기), 김현정2(김영옥), 김희경(임영애), 노환규(강사겸), 박영란(고수경), 박혜란(김정숙), 배광미(김세라), 송정아(김세현), 양미자(윤영란), 이대진(김영애), 이은영2(김수연2) 이향이(황보정숙), 정선희(최은숙), 최문경(이주형)

중보철야기도회



10월 31일(금)부터 11월 1일(토)까지 목양위원회 중보기도팀(팀장 : 원영숙 권사)에서는 2025년 중보철야기도회를 강화수양관에서 가졌다. 31일(금) 오후 7시 교회출발하여 강화수양관에 9시경 도착하여 식사후 오후 10시 교육관에서 이현주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선교단과 중보찬양팀의 연합으로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위임목사님의 겨자씨 기도(막 4:30-32)라는 제목의 말씀을 후 이진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간단한 간식을 먹고, 개인시간을 가졌다. 개인기도가 필요한 성도는 통성기도실과 침묵기도실에서 각각 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1일 아침 7시 30분 아침묵상을 위임목사님과 갖고, 아침식사후 9시경 수양관을 출발해 오전 11시경 교회로 돌아왔다. 중보철야기도회 참석인원은 약 80여명 이었다./ 김종은 기자

성경통신강좌 결산

11월 30일(주일) 오후예배에 교회학교 성경통신부(부장 황석상 안수집사)가 주관하는 성경통신강좌 수료예배가 진행됩니다. 성경통신강좌의 수료기준은 40주입니다. 성경통신강좌 수료자는 204명, 한가족통신상은 4가정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통신강좌가 개인의 말씀묵상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헌정 피택안수집사(성경통신부 교무)

〈수료자, 수상자 명단〉(직분 생략/여,남,가나다순)

1) 년차별 수료자 명단

구분	인원	수료자
1년차 수료자	7	김소형2, 김진영, 손옥분, 손원호, 손지은2, 진현경, 이대진
2년차 수료자	14	공혜경, 김경숙1, 김영희, 김정하, 김헌정, 김현숙, 나정자, 박재경, 박창숙, 양세현, 이정자1, 정양임, 최은숙2, 현옥희
3년차 수료자	15	김경애, 박순금, 석찬복, 유영인, 이경주, 이란휘, 이상범, 이영미, 이재훈, 임선숙, 임영선, 임정희, 장선이, 한춘순, 홍림
4년차 수료자	4	고정자, 김지리, 김지원, 양미자
5년차 수료자	3	김경미, 김경원, 박기철
6년차 수료자	3	심현숙, 오영순, 이정순
7년차 수료자	5	김순선, 김지연, 정선희, 조용상, 최은경2
8년차 수료자	5	김영복, 김찬진, 박영수, 윤문희, 최민자
9년차 수료자	5	강은경, 김순자3, 김호재, 이입산, 한기석
10년차 수료자	8	김창미, 김형기, 박현철, 배광미, 여명선, 이수진, 이순덕, 정선화
11년차 수료자	2	이미열, 정영희
12년차 수료자	8	김선미1, 김태화, 박은화, 위선진, 이성숙, 이옥희, 정영아, 조혜숙
특별기 수료자	125	강영옥, 고수경, 고옥강, 김경옥, 김경임, 김두옥, 김명신, 김보동, 김선진, 김선희2, 김성실, 김성언, 김성영, 김수연2, 김영숙, 김영옥, 김예슬, 김옥자, 김원광, 김윤환, 김응식, 김재순, 김재환, 김정숙,김정자2, 김정희, 김종순, 김진성, 김창호, 김한영, 김홍순, 나경남, 나운봉, 나운영, 남두리, 류현정, 문소희, 문우철, 문춘애, 문 현, 민병애, 민홍기, 박문숙, 박미자, 박선복, 박성우, 박 양, 박연식, 박영란, 박은주, 박재권, 박재천, 박정숙4, 박정신, 박현욱, 방난수, 방선자, 방영민, 백귀선, 백낙규, 봉정민, 서신옥, 서영자, 성열숙, 손정숙, 신복수, 신영자, 신용식, 신효덕, 심석환, 심희순, 안문환, 양미화, 양연화, 양정윤, 양행화, 오경덕, 오경숙, 우윤지, 원천숙, 원 철, 유명숙, 유미애, 유정원, 육경민, 윤명순, 윤영란, 윤은숙, 윤정호, 윤중환, 윤 희, 이광숙, 이금례, 이명복, 이미라, 이미원, 이복연, 이영숙3, 이영식, 이영자2, 이영희, 이옥화, 이윤복, 이재원, 이종진, 이해순, 이흥관, 임영애, 임인수, 임순기, 임정순, 임현정, 장동철, 장상애, 장선업, 장영순, 전민규, 정인용, 조선영, 주정진, 최명호, 최영준, 최호준, 홍양금, 황보정숙

2) 한가족 성경통신상 수상(총 5가정)

1	최명호	최호준	최영준	손정순	
2	박연식	윤중환	윤정호		
3	이복연	김진성	류현정	김예슬	김호재
4	심희순	박선복	심석환		

총 수료 인원(204명)

년차	남자	여자	소계
특별기수료자	37	88	125
12개년 수료자	1	7	8
11개년 수료자	0	2	2
10개년 수료자	3	5	8
9개년 수료자	3	2	5
8개년 수료자	3	2	5
7개년 수료자	2	3	5
6개년 수료자	0	3	3
5개년 수료자	1	2	3
4개년 수료자	0	4	4
3개년 수료자	5	10	15
2개년 수료자	2	12	14
1개년 수료자	1	6	7
합계	58	146	204

교구	제출자	30주차	수료자	소계
1교구	55	3	45	48
2교구	47	2	37	39
3교구	57	1	45	46
4교구	62	2	53	55
5교구	30	2	24	26
합계	251	10	204	214

기독교가치관 세미나



10월 29일(수) 오후 7시 수요기도회는 평신도교육부(부장 강사겸 장로) 기독교가치관교육팀(팀장 박미경 권사) 주최로,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주제의 올바른 기독교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미나로 드려졌다. 최경화 강사(前 카도쉬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의 성교육이 생식기 중심의 편향된 내용과 모방을 부추기는 미디어 자극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목적과 가정의 질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성교육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말씀의 안경을 써야 중심을 잃지 않는다'며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은 세상 가치에 쉽게 동화되고, 결국 잘못된 정보와 미디어에 길들여진 채 시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확인하며, 절제와 욕망 조절을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 고현수 기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3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나사렛예배실에서 '2025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다. 8시 40분 김주용 위임목사가 시작 기도를 하였고, 이후 각 교시에 맞춰 찬양과 설교, 기도로 진행되었다. 1교시(국어) 전소망 전도사, 2교시(수학) 장판규 전도사, 3교시(영어) 민지수 전도사, 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오한빛 목사가 인도하였으며 기도회 후에는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다. 염려보다는 기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점심과 다과는 청소년 주일학교 본부에서 준비하였으며 21명이 참석하였다. / 박윤신 기자

〈수험생 명단〉

강민재, 강준호, 고서현, 고은비, 고응희, 권예인, 김가람, 김규빈, 김기훈, 김다은, 김민국, 김서형, 김연빈, 김연후, 김예나, 김우진, 김준식, 김진희, 김진희, 김태원, 김한성, 김희서, 박수연, 박주언, 박혜진, 백정현, 송주안, 신유진, 안영찬, 육기돈, 이규빈, 이서빈, 이서원, 이서윤, 이우진, 이윤제, 이주희, 장원석, 전혜안, 조예지, 진예준, 최승렬, 최재원, 최태은, 최태인, 한예찬, 한지우, 허지혜, 현채원, 홍진희 (총 50명)

교회 첫 출석 아기 10월 19일 주일 2부 예배







최예서 아기(여, 2025년 1월 8일생)
최정열 성도, 임희재 성도의 딸/ 5교구 씽씽연동 6구역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예서를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주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9,10월 러브릿지"溫(ON)" - 이웃의 하루에 스며드는 온기, 러브릿지온의 두드림

▶ 9, 10월에도 러브릿지온은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지역의 독거 어르신 80명과 다문화가정 6가구를 찾았다. 계절이 바뀌며 더해진 일교차에 도움이 되도록, 포근한 가을 담요와 영양 간식, 생활용품을 정성껏 준비해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집 앞에 찾아와 안부를 묻는 이 시간이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기다림의 순간'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나눔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앞으로도 러브릿지온은 가까이에서, 꾸준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고자 한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린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9월 송파어린이 문화회관 '상상마루'에 다녀왔어요

▶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상상마루' 견학을 다녀왔다. 상상마루에는 다양한 예술감각과 표현 능력을 자극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견학을 통해 공간 곳곳에 펼쳐진 다양한 예술 요소와 체험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펼쳐보았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존중하며, 실제 경험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놀이가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고궁체험-창경궁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10월 15일(수) 아동들과 창경궁 체험을 다녀왔다. 아이들은 왕과 왕비가 살던 공간을 돌아보며 옛날 궁궐의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동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창경궁을 직접 둘러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으니 역사에 대한 흥미가 느껴졌다고, "왕이 살던 곳이 이렇게 크고 멋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해졌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물원 구경도 하고 다양한 식물 속에 함께하는 수천년 역사의 아름드리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배우고 보전할 책임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9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5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922,114	40,236,202	2,434,277	1,602,922	50,195,515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4,500,143	716,950	78,130	14,900,292	50,195,515

(10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51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947,901	40,412,950	2,502,035	1,001,610	49,864,496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785,992	689,336	148,654	15,240,514	49,864,496

목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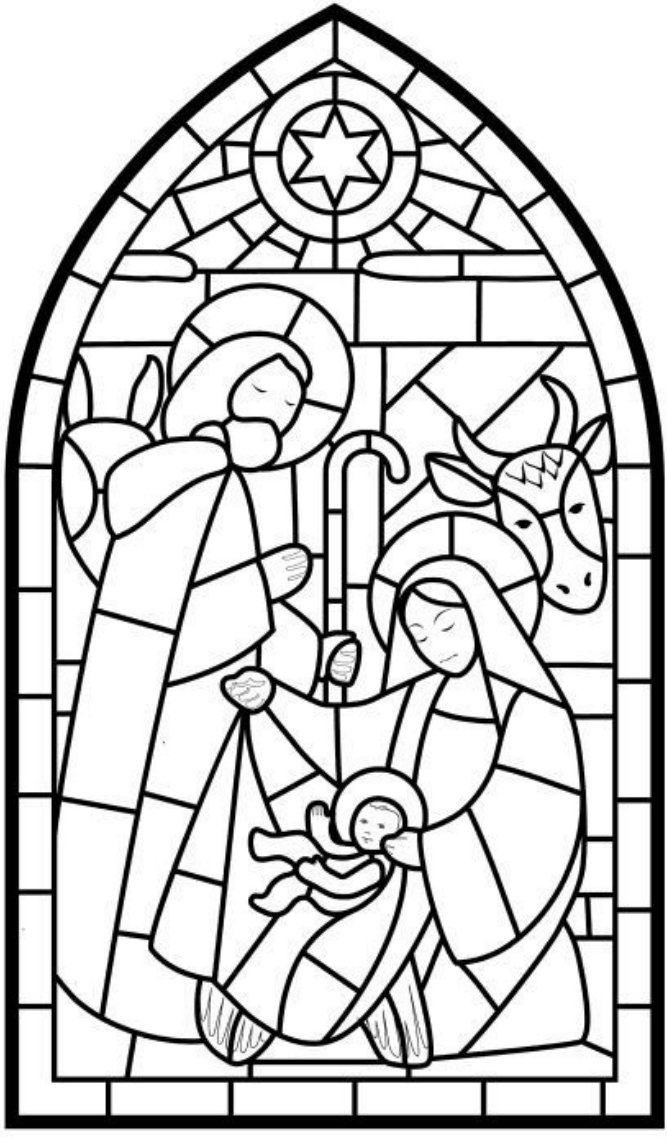
■결혼식

- 차승현(차태회 집사, 나길안 권사 아들/마포용산구역) 군과 박새롬(박정준 님, 조남향 님 딸) 양 10월 18일(토) 정오 12시 라이즈오토 그래프커렉션 5층
- 이재건(이경범 님, 염현주 님 아들/명륜연건구역) 군과 장미래(장병태 권사, 주인향 권사 딸/명륜연건구역) 양 11월 1일(토) 오후 3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다이아몬드홀 3층(지하철 2호선 삼성역 ⑤번출구, ☎ 02-2222-7401)
- 김태수(김정태 집사, 이상숙 집사 아들/용인구역) 군과 우미연(우재인 집사, 오미숙 권사 딸) 양 _11월 1일(토) 오후 5시 브라이드 밸리 (캠코 양재타워 지하 1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③번출구 ☎ 02-2058-0406)

■장례식

- 송재원 은퇴집사(정인용 은퇴장로 모친, 김동욱 안수집사, 김동현 집사 외조모, 최민희 집사, 장정아 집사 시외조모, 김가람, 가을, 태건 성도 증외조모/은평구역) 별세, 9월 24일 영동읍 설계리 선영에 모심
- 정정길 성도(정지원 집사 부친, 최윤영 집사 시부, 정재엽, 정유나 성도 조부) 별세, 10월 2일 백합의 뜰에 모심
- 유경란 님(조진숙 집사 모친, 박영만 안수집사 장모, 박진우 집사 외조모, 임가은 집사 시외조모/행당금호구역) 별세, 10월 5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모심
- 정양남 권사(김경임 공로권사 모친, 문현 은퇴장로 장모/신내구역) 별세, 10월 13일 보성읍교회 동산에 모심
- 김동대 님(김세현 집사 부친, 권대환 성도 장인/광진중곡구역) 별세, 10월 18일 경남 창녕 선산에 모심
- 정진숙 권사(신정휴 성도 모친, 장애선 집사 시모/혜화구역) 별세, 19일 부여 선영에 모심
- 허정순 명예권사(임정희 권사 모친, 김성영 장로 장모) 별세, 11월 1일 임실 호국원에 모심
- 김영선 집사(김경애 집사, 김경숙 권사 남동생/제기청량리회기구역) 별세, 11월 12일 연동동산 에 모심
- 백해기 사모(진화신 집사 모친, 김기형 집사 장모, 김다은 성도 외조모, 오진웅 성도 처외조모/길음구역) 별세, 11월 15일 임피 선영에 모심

*10-11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1월 11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

8-9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남상옥(효제구역)-4380



윤문희(성북2구역)-9147



이영우(씽씽7구역)-0905



여주미(종로5.6가)-5465



성열숙(낙산)-0647

연 못 골 제 57권 623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5년 11월 23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파도가 몰려와도 해변은 흔들리지 않듯,
꽃이 시들어도 뿌리는 자라듯,
땅이 갈라져도 하늘은 변함없듯,
세상살이 춥고 혼란해도
주님 함께하시니
따뜻합니다.
평안합니다.